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面

京城府蓮建洞一九五 朝鮮日報社

社說

在滿朝鮮人中學促成會

一

在滿百萬同胞가 從來痛切하게 느끼든 그子弟의 高等敎育을 實施할 前提下에서 이번에그 各地의代表者들이網羅한 中學促成會를 組織하엿다한다

只聞한바에 依하면 在滿同胞의 敎育機關으로서의 現在初等學校가 不完全하나마그統計는 約五百四十校에 達하며 生徒總數는 約三萬一千名에每年卒業生數는 줄잡아도 三千一百名에 내리지 아니하는데卒業生중 上級學校의 志望者를 一割만 치드라도 넉넉히三百十名이되리라 한다

二

이것을 다시 地域別로 하면 間島가 首位를 차지하야 生徒總數의 約 一萬五千名에 卒業生이 一千五百名假量이며 南北奧地가 次位를 차지하야 生徒總數의 約九千名에卒業生이 九百名假量이며 滿鐵沿線이 또그次位를 차지하야 生徒總數의 約七千名에 卒業生이 七百名假量이 되는바特히 滿鐵沿線에 잇는 八個初等校에 對한 最近調査를보면 現在六學年生徒三百六名 중에서 장차 上級學校에 가려는 志願者가 百廿一名에達하며 그중에서 學力體力資力이 具備한者만해도 八十二名이 된다 이八個校外에도 各校의 이미卒業한者와 장차卒業할者로서 中高等校에 志願이 밀서六七十名에達하엿다한즉 다른데는 말말고 오즉 이滿鐵沿線에서 나는入學資格의 確實한者만해도 거의 二百名에 達하며五個年이면 約千名이되리니 이것만으로도 五百名식 收容하는 中等學校 二個校는 設立하여야하겟다

三

그런데 今日까지 一個中等學校의 設立을 보지못하게된것이 무슨까닭인가 거기는멧가지原因이잇스니 一處에集團的居住를 하지못함과 生存上脅威를 느낌과 또는 生活의窮乏에 쫄리기 때문에 맛당히하여야할 이中學校의 必須機關을 맨들지 못하게된것이다

그러나 人類는 사는날外지는 飮食과 아울러 敎育을廢하지 못할것이니 그의必要함은 다시說明을 기다릴바아니며 敎育의 그內容과 및그效果에 對해서는 아즉 別問으로하고 不充分한 그敎育이나마 近代文化에 飢渴症이들린 우리朝鮮人에게는 남보담 만층더 急務임을 痛感하게된다 在滿日本人이 겨우 二十五萬에그中學數가 九十一校에이르게된實例를 들어다가 比較할것도업시 在滿百數萬同胞中에서 아무리 窮乏하지마는 中等校一個所도 업다해서야 될을우나부끄러운 일이 아닐가 有志諸氏의 中學促成會를 組織한것은 當然한일로 오히려晩時의歎이 업든것이 아니다 다 [illegible] 는 有力한篤志家의만 [illegible] 가 必要하야 有終의美를 건 [illegible] 明를 아끼지안허야 [illegible] 吾人이最後로 付託하는바다

船舶에關한二大提案

諾和兩國은造船海運補助撤廢
佛蘭西는巨船의國際管理案을
各其經濟會議에提出

【聯合倫敦二十九日發至急報】 諾威、和蘭兩代表部는二十九日經濟通商委員會第三分科委員會 甲號小委員會(政府補助金問題)에 對하야 議事日程에關한 意見書를提出하야 造船及海運業에對한政府補助金을可及的迅速히撤廢할決定的協定을起草하도록提議하엿다

【倫敦二十九日發電通】 佛代表部는經濟會議에對하야일즉이佛國이壽府軍縮會議에서民間飛行機에關하여서한것과가튼 大洋通航의巨大한客船及貨物船에關한提案을하기로되엿는데 그內容은如左하며事實上巨船의國際管理案으로볼것이다

一、經濟會議는參加國船主에對하야如左한點에關하야國際的協定을設定할招請狀을發하도록勸告하기를多邊的契約下에船舶을共同으로提供하야大洋航路를運轉함

二、또將來의大洋通航의船舶建造에對하야서는一定한噸數制限을付함

三、各船主提供의船舶은그所屬國의旗를揭揚시킴

通貨戰展開形勢로 議長各代表와會商
金本位國과의共同戰線企圖乎
協定成立은事實無根

【倫敦二十八日發電通】 經濟會議議長『맥』英首相은 會議國間에 通貨戰展開의形勢가잇슴을보고二十九日朝來各國代表와繼續하야會商하고 事態의進展을抑止코자努力하고잇는데 一便英國의 歐洲金本位國에對한接近은 決定的事實로觀測된다 卽英代表部는昨日못게通貨『인프레』를制限코자하는 一般的協定의成立을目的으로하는 意見書를 提出하엿는바이에對하야英藏相『체임벌레인』氏는 英代表部가 昨日會議에提出한意見書는 通貨의騰貴에依하는變動을抑止코자하는 希望을强調하려는것이다 라고聲明하엿는데 이것은實로弗安을防止하려고英國이 歐洲의 金本位國과共同戰線을펴려하는企圖로觀測된다

【聯合倫敦二十九日發】 英、米、佛三國間의 爲替安定協定의成立이稀薄하여진結果 英國과佛國和蘭等의 金本位諸國과諒解가成立하야 此等金本位諸國의通貨와磅貨와의 現在水準에固定하고 米國이爲替協定을全然拒否하는境遇에도 事實上의爲替安定을 不得已하게하기로決定하엿다고一部에傳하는바 如斯한報道는 모다지나친것으로서英國과金本位諸國과의間에새로운協定이 成立한事實은全然업다

和蘭金本位停止 日本에影響莫大

【東京二十九日發電通】 金本位制의危機에對하야非常對策으로 和蘭國立銀行의利子引上은數日來로 切迫하여온同國의金本位停止는 입이時日問題로되여잇는바이것이 日本輸出貿易特히纖維工業製品輸出에及하는影響은 重大하다

卽和蘭本國과 日本과의直接貿易은 큰重要性은업다고하여도 日本輸出品市場으로近年자못重要性을 增大한蘭領印度에 對한綿製品 人絹織物의輸出에는莫大한影響을及하리라고觀測된다 蘭領印度는 日本 綿布市場으로 印度에 다음가는 第二位地位로躍進하여잇고 이것은圓爲替下落에基因한것임으로 和蘭의金本位停止에依한爲替가下落을齎來하면 單純히蘭領印度만에 局限할것이아니라同地를中心으로한 南洋市場全般에影響을及하리라고 觀測된다 더욱昨年中의棉布輸出高를種類別로나누면左와如하다

(單位平方碼)

生地七〇、五八一 晒六六、四六七 加工二一、五〇八〇 合計三三五二、一二八

小麥統制에關한 濠洲新訓令內容
留保附로植付面積減少에同意

【倫敦廿八日發電通】 經濟會議濠洲代表部는二十八日小麥統制問題에關하야本國政府로부터新訓令을接하엿다그內容은極秘에附하엿스나 歐洲諸國이小麥收穫制限에同意하면濠洲는數個의必須的留保를附하야小麥植付面積減少에同意한다 라는趣旨의訓令인모양으로諒解되야이結果經濟委員會第二分科委員會(生産販賣統制)에잇서沈滯한狀態에잇는小麥生産統制協定問題의好轉이期待되고잇다

公金消費事件으로 有馬氏正式起訴

【東京二十九日發電通】 瀨野川町役場公金消費事件으로 取調中이든 長野縣政友代議士瀨野川町長有馬義雄氏는二十九日正式으로起訴되엿다

水野氏後任에 松平伯을推擧

【聯合東京二十九日發】 平沼法制審議會正副總裁는二十九日協議한結果前日辭表를提出한水野錬太郞氏의後任으로 選擧法改正主査委員長에 松平賴壽伯을推戴하고 더욱比例代表에關한 補充委員에 京都帝大敎授森口繁治、辯護士平松市藏兩氏를主査委員에補充任命하기로決定하엿다 따라七月五日首相官邸에 主査委員會第一回會合을準備하고比例代表制審議에着手할協議를行하기로되엿다

滿洲國은一蹴 政治問題提出하면

【聯合東京二十九日發】 北滿鐵讓渡會議는二十八日會議에서 드되여七月三日부터實質討議를開始하기로되고三日第三回會議에서는蘇、滿雙方이모도賣買問題에對한具體的提案이잇스리라고注目되여잇다 特히蘇側은三日에提出될蘇側提案에對하야請願을發한모양이다三日은모처蘇側으로부터最初의意思表示를할것인바그範圍는大體左와如하리라고觀測된다

一、蘇國은滿洲國에北鐵을讓渡함으로서日滿兩國에及할政治的效果

一、北鐵創始以來此를圍繞한國際政治關係에對한蘇政府의見解卽本交涉開始에伴하야南京政府로부터의抗議及佛國의債權確認運動等은조금도法律的效力이업다는것을力說

一、賣買條件其他

然이나 滿洲國은一切의政治的考慮除外를主張하고잇슴으로蘇側이右와如한政治問題를 提出하면一蹴하기로決意하고잇슴으로 會議는當初부터緊張을呈하리라고 觀測된다

猶太系獨建築家 就職依賴狀寄來

【東京二十九日發電通】『나치스』의極端的國粹主義는 猶太人排斥 다음으로進步的學藝技術의消極的措置에外지 밋치바 이때문에昨日外지獨逸學界또는 工業界에重要하고確乎한 社會的地位를 占領하고잇든 多數猶太人系獨逸人은滅絶히職을 째앗기우고 生活이困苦한 狀態에빠저 最近日本學界 事業界의友人에게依賴하야頻頻히就職依賴의書狀이寄來되는바 이가운데有名한것은伯林의『아인스타인』天文臺를비롯하야多數의 大建築에從事하야同國建築界一方의權威로서名聲잇는『에릿히、멘델존』氏가 數日前建築家伊藤文四郞、山田守兩氏에書函으로日本가서滯在할터인데經濟的便宜를 도아달나고依賴한것을비롯하야 새로운建築家로서有力한『옷토、헤슬러』氏도山田氏에게對하야 日本또는滿洲에서自己를雇用하여주지안켓느냐고就職希望을말하엿다고한다

對米麥酒輸出良好

【華盛頓二十八日發電通】 禁酒法撤廢以來日本으로부터米國에輸出되는麥酒는每日盛况을呈하고잇는바 特히暑氣가加한昨今 米國에서麥酒의需用은一層旺盛하야 이麥酒愛飮으로五月中에米國으로 들어간日本麥酒는 實로二十萬八千四百三十八『가론』卽約百四萬本餘이라는數字를보이고잇다

定例次官會議

【東京二十九日發電通】 定例次官會議는 二十九日午後一時半부터官邸에서 開催되엿는데外務海軍兩次官으로부터『감차카』漁夫殺事件에 關한抗議의經過를報告하고 印度關稅問題에對하야報告가잇슨後 午後二時散會하엿다

臺灣銀行利下

【臺北二十九日發電通】 臺灣銀行은七月一日부터定期預金年五厘其他日步一厘의預金利下를한다

灤東地區問題 交涉進捗中
列國干涉誘致策動者도잇다

【東京廿九日發電通】 停戰協定後의灤東地區에서善後處理에對하야서는 여러가지로交涉中이든바 最近某方面에서各種의憶測을하고 이問題로再次北中에危機가齎來하리라는風說이流布되고잇는데 이에對하야二十九日陸軍省에 到達한確報에依하면 中國側의一部에서灤東問題에依하야 列國干涉을誘致하고자策動하고잇는者가잇섯다는 風說도이섯으나關東軍과北中當局者와間에는 交涉이進捗하야 最近本問題는 圓滿解決하야北寧鐵路運行問題도解決促進될모양이다

米國海軍飛行機 太平洋에總集中

現役艦二百九十九隻動員
明年度米國海軍運艦計劃
企圖를異常注目

【『싼페드로』二十八日發電通】 二十八日米海軍當局으로부터明年度海軍運艦計劃이發表되엿는데右에依하면總現役艦은二百九十九隻將兵五萬四千百五十八人을動員하는것으로此總動員時의七十八퍼센트에該當하는 老大한것이다또海軍飛行機四百九十一機八十二人乘大型機三百四十九機도其中에包含되고戰艦十三、重巡洋艦十五、輕巡洋艦十、驅逐艦八十、航空母艦四飛行船『메콘』號等計百六十四隻이『싼페드로』『센데이고』地方에分屬되는바飛行機의거이全部를太平洋에集中하는것은자못注目된다

採鹽成績良好 이미豫想의近八割

專賣局發表=六月二十日現在採鹽高는合計一億八千九百九十三萬五千斤으로本年度豫想高의七割七分一厘에達하는好成績을보이는바 그것을各所別로보면朱安一千五百七十一萬七千斤南洞二千七百二十萬六千斤 君子四千三百七十三萬三千斤 廣梁灣六千二十四萬斤 德洞一千七百五十三萬九千斤 貴城九百九十萬斤南市一千五百六十萬斤이다

英外相에게 石井氏警告
對日關稅引上問題로

【東京廿九日發電通】 二十九日松平大使로부터 外務省에到達한公電에依하면 石井全權은二十七日英國外務省에『싸이몬』外相을訪問하고 最近英領植民地及屬領에잇서 頻頻한對日關稅引上問題에對하야 四月十日附의日印通商條約廢棄以來頻頻한 關稅引上은專혀日本商品을目標한것임으로日本國民의對英感情을刺戟하야 日英通商關係를惡化할뿐만아니라 이어서日英親善을害함으로 日本은甚히遺憾으로여이는바이다 라고述하고 重大警告를行한바此에對하여『싸이몬』外相은 今回의印度關稅問題는 印度政府의發意에基한國內事情으로英本國은干涉할수업다 海峽植民地도英本國은 自由로干涉할수업다 라고하야 誠意를보이지안음으로外務當局은不快한感情을가지고잇다

藏相靜養繼續

【東京二十九日發電通】 高橋藏相은最近再次健康을害하야去二十六日부터赤坂自邸에서靜養中이든바主治醫의勸告도잇서近日中에約一個月豫定으로葉山別莊으로가서靜養을하기로되엿다

史上의叛逆兒【三】

民衆革命의先驅 平西大元帥洪景來(一)

文一平

◇오늘날外지 叛逆兒는 奴隷以外에는 대개가 逆臣이 아니면 筆鋒을 쥐인儒紳이지마는 여주먹을 가진一個常民으로 一大革命을 일으킨것은 洪景來가 처음이다

◇洪景來는關西人으로 關西에서 叛旗를 들고 朝廷에抗拒한것은 마치李施愛가 關北人으로 關北에서叛旗를 들고 朝廷에 抗拒한것과 비슷하거니와 다만施愛가地方分治를 우겻슴에 反하야景來는 地方差別을 깨트리려고한것이 判異하며 前者는 貴族임에 對하야 後者는 常民인것이 懸殊할뿐이다 말하면 景來는 關西常民으로 일어나 兩班政治를 그根本에서부터 깨트려부시려고 武力行動을 取한것이다

◇國朝以來 地方을 差別하야西北人을 登庸하지 아니함은一種傳統的 政策으로 맨처음에는 頑悍함을 꺼려서 쓰지안튼것이 차차오래매 微賤함을 업수히녁여서 쓰지아니하야 마침내 西北은 政治上 社會上 一種禁錮地帶가 되고 말앗다

그러므로 西北에 태여나면 아무리 傑材偉物이라도 通顯의길이 끈어지고 抗敵의交를 하지못하나니 同一한仁天아래同一한赤子로서 이처럼 差別待遇를 밧게됨은 참으로 抑鬱한일이다 王室에서는 몃번이나 西北人을 登庸하랍시는綸音을 내리셧지마는 아무效果가 업섯다 極端의一例를 들건대李成樑과 金誹明은 모두 關西人으로 明末淸初에 中國에건너가 將相이 되엿스되도리어 本國에 잇서서는 將相은커녕 正郞도 내지못햇스니 이것이 얼마나 理論上 矛盾인가 이러케歷史的으로 차여온 關西人의 不平이 四百年동안을 두고 鬱積하다못해서 곳 一朝에 爆發하게된것이 洪景來亂이다

◇때는 어린 純祖때에 外戚이 되시매 政權을 弄하야 人心이 不服하며 關西地方에는 荒歉이 겹처드러 郡民의生活이 아주 말못되엇다 이社會的 動搖를 타서 일어난 洪景來는 그根據地인 嘉山多福洞에서 軍士를 몰아가지고 첫싸홈에 本郡守鄭蓍父子를 죽이고 이에 軍士를난호와 一軍은 北進하고 一軍은 南進할새 景來는 이南進軍을 거느리고 安州로 向하얏다 그는 淸川江을 건너지안코 松林에 駐屯하야 平西大元帥의 일홈으로 檄書를 四方에날리되 關西는 일즉 檀箕古域으로 文物이 빗낫스며 壬辰과丁卯의亂에 國家에 効忠함이 만핫거늘 朝廷이 어찌하야 關西人을 [illegible] 今日은 어린넘금이 [illegible] 權奸이 政柄을 弄하며 災禍이 잣고 凶歉이 겹처드러 生民이 塗炭에 빠젓스니 우리西土人은 모흔속이 이機會에 들고일어나 國內를 肅淸할것이라하고 因하야 方伯守令에게 降服을 勸하엿다

◇洪軍이 이르는곳에 道路에 黃土를 펴고 鼓樂으로 送迎하게쯤 人心이 響應하야 數日동안에 淸北列邑이 景來에게로 도라갓다

그는 힘드리지안코 占領한 各邑에다가 그同志로 邑倅를 삼아 堅守케하고 장차 北進軍이 兩西財賦의區요 燕京交通의門인 義州의攻陷을 기다려 軍務를 解決함과함께 後顧의憂를 업게한後에 景來는 大擧하야 京師로 向할豫定이엇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알앗스랴 이 妙策이 도리어 一大敗因을 짓고 말앗다

日本品에對하야 濠洲『덤핑』稅賦課

村井領事對策講究請訓

【東京廿九日發電通】 二十九日시드니村井總領事로부터外務省에到着된報告에依하면濠洲는最近日本品에對하야『덤핑』稅를賦課하는運動이旺盛하여진結果濠洲聯邦政府는産業保護에依하야關稅審議會에附託하엿는바政府意向으로는『고무』靴外에日本主要輸出品인硫安、陶器、玩具等도上議시킬터인데村井總領事는外務省에對하야輸出品의關稅引上을未然에防止하고對策을講究하도록請訓하여왓다

米資激減 各銀行會社

今年四月以降漸減步調로近最에이르러各銀行會社米穀貸가急激減하얏나

東拓	四五一萬圓
殖銀	五六〇
鮮銀	四〇〇
商銀	一七〇
合計	一五八一

日貨廉賣問題 會議서表面化
代表部對策講究中

【聯合倫敦二十八日發】 非公開會議進行中이든 通商條約起草委員會席上에서日本品의爲替『덤핑』에關한問題가審議되엿다此日本品廉賣問題는早晩에어떠한形態로會議에表面으로提出되리라고豫想되여잇다 그리고이問題가 마참내表面化될境遇에는 日本의立場은會議開會以來의 困難한地位에陷될憂慮가잇다고豫想되나 日本代表部에서는 그對策으로

一、問題가表面化될境遇에는日本品의廉賣는國內의生産狀況에依存하는것으로 決코不當廉賣의性質을가지고잇지안타는點을力說할것

二、一方問題가表面化하는것을 極力防止하기로努力하야 日本이起草委員會에參加하잇슴으로 수잇는手段을取할것

等二個의方途이다 元來廉賣問題는 이미『쥬네브』準備委員會當時부터 日本品을目標로하고잇슴으로 其背後에는海外市場에잇서日本品進出에打擊을주려하고잇는英國의策動이잇는것이라고推測된다

適當한時期에 殖銀東拓利下

朝鮮特殊事情考慮後決定

勸銀、農銀、拓銀은下期의長期金利를一般一厘、特殊二厘줌引下키로決定햇는바殖銀、東拓에서도一般資源이低下와意向인것갓다 現在日本과의金利의間隔은個人貸長期一分인바今回의日本의利下에依하야그間隔이擴大되엿슴으로그것을緩和하기위하야서도가까운將來에利下를實現하리라고觀測된다그러나殖銀、東拓은從來부터日本에追隨하지아니하고自主的金利政策을採用함으로써利下實現의時期等에就하야는朝鮮의特殊事情을考慮하야決定될것이다

金組貯銀信託 當然利下

銀行의預金利下와因果關係에잇는信託金組貯銀案의利下도當然히問題視되는바信託의利下에對하야서는鮮銀으로부터朝鮮信託에對하야同時에他信託도當然히利下를實現하리라고보이는바 다만問題는金組와貯銀으로서이에對하야는總督府에銀行側으로부터銀行金利에追隨利下하도록陳情하게되엿다고한다

大連組銀利下

大連組銀下는日本內地의預金利下에追隨하야來七月一日부터定期年五厘其他日步一厘의利下를實施하기로決定하엿다同組銀은日本金利와均衡을維持하는意味下에特別當座預金도日步一厘를내리워一厘로改定하엿다

鮮銀所有證券 內容良化

鮮銀最近의所有有價證券總額이一億四千萬圓으로 其大部分을占하고잇는公債가一般證券에追隨昂騰되기때문에 內容은非常히良化되엿다

木炭檢査와 運賃을低減

明年度부터實現乎

二十九日午前九時부터開催된木炭增産懇談會는正午朝鮮『호텔』의午餐會에 가서그대로 會議를『호텔』에옴기어協議를繼續하고午後四時半에散會하엿는데懇談會에서는朝鮮木炭의將來가日本內地及滿洲에彪大한市場을擁하야前途가매우有望한바가잇서또다시朝鮮內山地帶農家의副業으로絶好한것일뿐아니라朝鮮林産開務을爲하야서도가장機宜에適當한것이라고意見一致되야今後對策으로서도規格을統一하야販價를올니기爲하야檢査制度를實施하는것과品質改善增産獎勵를爲하야補助金을交付하고또木炭製造用原木의拂下에對하야서는特히考慮하는等適當한獎勵策을講究할同時에朝鮮內市場搬出에對하야서는包裝을完全히하야運賃의低減을企圖할것이라함에大體意見이成立되엿다右意見은總督府에서考慮하고잇는것과同一한意見임으로總督府에서는이意見을採擇하야明年度豫算에이의實行에要하는經費를要求하기로되얏는바朝鮮內木炭의現況은生産高約二千萬貫中現在日本內地市場에二三萬貫을移出하고잇슴에不過하엿스나朝鮮産木炭이品質에잇서서南洋中國産보다못하지아니함에不拘하고약차속하면海外品에눌니며日本內地市場에서逐年衰退하고잇다그原因은要컨대規格의不統一과運賃의高價에잇는實情에鑑하야今後檢査制度를設置하야生産品의統一을行하야販賣系統에統制를加하면海外品을驅逐할수잇슬것이며總督府에서는明年度約十萬圓을計上하야先檢査機關을設置하는同時에運賃低下에對하야서는考慮하기로되엿다

一期蓬萊米 買上은中止

【商通大阪發】 蓬萊米本年第一期米買上은處分困難과倉庫不足으로効果를期키難해今回는그것을行치안코今後適宜하게二期米正租買上을考慮키로決定햇다

朝鮮利下는 七月五日頃乎

金組도同時에實現

日本東西銀行의利下는 七月一日부터實施될모양이다 總督府에서는金融組合의利下를 [illegible] 意向인바 [illegible] 朝鮮銀行 [illegible] 에서도여기에 追隨하야利下케되는바 朝鮮은七月五日지내여實施期는組銀과同一하게될모양이다

滿國民政次長一行 廿九日午後入京

去十日川崎造船所에서擧行된滿洲國海邊警察隊所屬警備船『海鳳』의進水式에民政部總長代理로 列席한後日本各處를觀察中이든同民政部次長葆康氏外一行六名은二十九日午後五時着入京朝鮮『호텔』에投宿하엿는데氏를『호텔』에訪問한즉葆氏代理로警務司長代理督察官坂下德道氏가다음과가티말하엿다 滿洲國海邊警察隊所屬警備船은五隻으로年內竣工할豫定인데그中一隻이되엿슴으로五隻全部의代表進水式에出席하고온셈이다 一行은京城에二泊하고明日은總督府를訪問할豫定이다

辭令

【東京二十九日發電】

朝鮮公立高等普通學校敎諭 長谷川 旭

任朝鮮公立高等普通學校敎諭(七等)

朝鮮公立中學校敎諭 高井 憲夫

依願免本官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一〇〇(一〇上)
鐘新	一一〇八〇(一〇高)
日產	八六〇〇(四〇低)
東新	二〇六〇〇(五〇低)

東京短期

[illegible]

移秧隊의總進軍

昨今의 때맛게 온 豊足한 비로 近年希有의記錄的移秧成績

慈雨는四野에滿溢

작금에 전조선적으로내린 호우는 례년에비하야보면 약십일동안이나일즉은모양이나 해마다 모ㅣ시비가느저서 애를먹는조선으로서는 금년가티 알맛게풍족하게오비는 실로드문일로서 각지의 모심기는 례년에볼수업슬만큼 조흔성적을 보이고잇다 전조선중에 모심기로서는 제일느즌 지방인 전라남도지방은례년 륙월보름이라도 이삼할밧게되지 못하엿스나 금년에드러서는이미 륙칠할을 마치게되여이번비로 말미암아 산간지방천수답이라도 일제히 모심기를 마치게되엿다 평년으로 보아 조선안의 모심기는 칠월 이십사오일 경까지 마칠것가트면 일반으로조흔성적이라고 볼수잇스나 금년에는 느저도 십일까지는전부 마치게될모양이나 이번비는 부분적으로 남조선지방에 잇서서 다소 증수피해가잇는 모양이나 그리 심하다고는볼수업고 모심기에는 다시업시적당한 비가되엿다 그리고보리에는수확되곳이 적음으로 다소걱정되는 점이잇스나 총독부농무과의 말을들을것가트면 금년은 도처에보리의속히버히는방법을 장려하야 전라남도와가티 거의 버히는 곳에서아직수확치못한곳이극소부분으로 잇슬뿐으로 나라서보리의피해도극히적다고볼수잇스며면작(棉作)에는아모영향이업섯다고하다

今日은曇天 長霖은繼續

이번비는 금년에드러 본격적장마로아직도 각처에게속하야 비가나리는바 커긔압은는순산 황해류역 상해남부에잇서 북동으로진행중 긔압이 매우 불안정하고 고긔압은 북해도 동해안에잇스나미약하다 이십팔일 오전여섯시부터 이십구일정오까지에 전조선각지에 나린우량은 다음과갓고 삼십일까지도 일긔는흐려 장마가게속될모양이라고한다

新義州一미리▲仁川五二▲京城一〇▲全州一一四▲木浦五七▲濟州島三미리▲元山四二▲江陵六八▲大邱五四▲釜山八〇▲群山八四▲群山一三四▲平壤一〇▲春川四一

인데 경긔도내각지의 십팔일오전열시부터 십구일 오전열시까지의 우량은 다음과갓다

▲江華島四七粍▲豐德三八▲開城四一▲長湍三八▲漣川三〇▲坡州四一▲金浦四八▲議政府四四▲加平四二▲永登浦三八▲水原五三▲廣州五九▲楊平四七▲伊川五七▲安城四七▲平澤六八▲驪州四六▲龍仁五一▲京城三九四

清州一帶에도 道路가浸水

청주(清州)는 이십구일 오전십시까지 일백사십일미리의 비가와서 도로가침수된 곳이만어관내의 자동차도로는 거이전부가 불통중이다

春川原州外는 交通이의杜絶

강원도지방은 이십팔일부터 이십팔일까지 춘천(春川)을 중심으로 백여미리나 비가퍼부어게천이모다 증수되고 도로가침수된곳이만어 자동차선로는 춘천에서 원주(原州)로가는것 외에는 거이불통이되엇고 농작물은 아직 별반피해가업다

漢江增水十八尺

시각마다점점증수되는중 念慮되는麻浦方面

상류지방에 비가만히온 관계로 한강물은 시각마다 증수되고잇는데 이십구일오후네시 현재는 오이오미돌(五、二五米)이고 동 여섯시 현재는 오십 오미돌(五、五〇米)쯤 으로 환산하야 십팔척에 달하엿고 알흐로도증수될모양이다 한강연안은십이미돌 까지는 침수의염려가업고 마포(麻浦)방면이 위험하나아직은여섯시현재는침수된것이업섯다

錦江水位는 五米突增加

충남지방은 이십팔일 이래의비로 이십구일오전열시현재 공주금강(公州錦江)의 수위는 오미터이상에달하야 자동차교통은 각처에서 불통이되엇다 그리고 론산군양촌면도평리(論山郡陽村面道坪里)에는 산동도로륙십간이붕괴되엇다

千三百年間發掘할 無煙炭의埋藏量

일년에백만돈식을파내여서 寶庫朝鮮의地下打診

총독부광무과의 조사에 의하면 전조선의 무연탄매장량은 실로 십삼억사천만돈(噸)에달하야일년에 백만돈을파낸다하면 실로 일천삼백사십년 이백만돈을파내면 륙백칠십년간이 걸릴터인바 각도별매장량은 돈수로다음과갓다

平南	七九一、〇〇〇
平北	二〇、〇〇〇
慶南北	二七、〇〇〇
咸南	一二五、〇〇〇
江原	三七四、〇〇〇
全南	三、〇〇〇
計	一、三四〇、〇〇〇

產婆規則改正 地域制限撤廢

이십륙일부로 산파(產婆)규측이 최령으로개정발포되엿다 그내용에 의하면종래 산파는 일본 조선 대만(臺灣) 기타속령에공통되지못하든것을 금후 공동하야 지역의구별이 업시개업케된 것이다 그내용은 금년일월이후 산파시험에 통과된사람은 각지 공동하야 개업케되는데 조선내에서 산파양성소로 내무대신의 지정이 되여잇는곳으로 지격의 구별이업시 개업을 할수잇는자격을 주는곳은 아래와가다 경성대학의학부 평양(平壤) 대구(大邱)함흥(咸興)도립의원 과 룡산(龍山)철도의원의 산파양성소 세부란쓰병원 조산부부과등이다

永同農組被告 一齊控訴

【公州】 충북영동 농민조합(永同農組)사건과 동척우동맹 사건의 피고열한사람이 오래동안 심리끗헤 공주지방법원에서 최고사년과 최하일년반의 언도를받엇다함은 귀보와 갓거니와 동피고중 집행유예의 언도를밧은장준(張埈)은검사의공소로그외는권부 자신의공소로 다시경성복심 공판에회부되야 지난이십팔일 아참다수경관의 호위아래에동피고 권부를경성으로 호송하얏다한다

危險한爆破作業

爆破된石片으로家屋이破壞 靈泉住宅工事場에서

이십팔일오후일곱시이십분경에 부내현저동(峴底洞)령천주택경영지(靈泉住宅經營地)에서그회사대표자 양재규(梁在奎)씨가 인부리창연(林昌演)과 김긔연(金基演)의두명에게 바위를 깨트리는 작업을식히든중 위험을막지하는 장치가 완전치못하야 그곳에서 약사가쯤떠러저잇는연대성(延大成)의집에바위의 쌔여진 쪼각이날러가서 그가옥일부를 파괴식히고 다시임신한지사개월되는 연씨의처유씨(劉氏)는놀라서 복통을이르키고잇다한다

早大陸上軍 昨夜에入京 金恩培君도

칠월이일 경성운동장에서 조선륙상경긔련맹과 대항경기를 할 조도전륙상 경기부 원정군(遠征軍)은 이십구일오후다섯시특급으로 경성에 도착하여일행이십삼명은 본정(本町)이정목 포미(浦尾)려관에 류숙 하엿는데 그중에는 김은배(金恩培)군도 들어잇다

棄兒、失兒、孤兒

一年間市內서三百名 어린受難者의統計

시내돈의동(敦義洞)열빈루(悅賓樓)에서 중국인 우빈해(于濱海)에게 여섯살된조선녀아가참살된 사건을 발단으로하야일반사회의여론은이러한독아(毒牙)에걸려서학대 매매 참살을당하는가련한어린이에게로집중되고잇다 이러한 어린애들은대부분은집일흔아이 몰정한 부모에게서버림을당한아이 사고무친한 고아(孤兒)인바경성부의통계로보면작년도에시내에서 집일흔 아이의수일백설흔여섯명내다버린아이가 아흔여섯명 고아가예순두명으로도합이백아흔여섯명의다수에달하며 금년사월부터 이달이십구일까지 두달동안에 집일흔아이가여섯명 부모가 내다버린아이가열한명 고아가 열네명으로도합이 서른한명이나 되다이러한 미듬곳업는 어린애들은경성부에서는시내옥천동(玉川洞)에잇는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에 의탁해서양육하도록한다고한다

保育院收容者 不過二百名

棄兒는女兒가絕對多數 孤兒와失兒는男兒뿐

시내에서집일흔아이와몰이정한 부모에게 버림을바든 아이와고아를모아다 기르는옥천동(玉川洞) 경성보육원(京城保育院)은 십사년전에 설립되엇는바 현재의원아(院兒)의수는이백삼명이며그중 집일흔아이와 고아가일백서른세명 부모가 내다버린아이가일흔명이다 이것을 남녀별로보면 집일흔아이와 고아는그대부분이 사내고 계집애는륙칠명에불과하나 내다버린 아이는 그삼분의이이상이계집애라고하는바이러한 불상한 아이들을차자가는부모는 거이업고 집일흔아이를 차자가는부모가 일년에 삼사명에 불과할뿐이며 도리어 인간에게 천대를밧는 이러한애들은매년증가하는상태에잇다고한다

物產獎勵會移轉

시내락원동에잇든 조선물산장려회는 금번부내 수표정 사십이번디로 이전하고 휴간중이든 동회에서 발행하든 긔관지는 『신흥(新興)』으로 곳치어서 오는팔월부터 계속발행 할터이라한다

梨花女專의 地方巡廻音樂

梨花專門同窓會主催 今三十日에發程

리화전문학교동창회(梨專同窓會)주최의『리화순회음악단』은 삼십일밤 개성(開城)을 비롯하야 경의선연선륙개소를 방문하고 성대한연주회를 열기로되여 삼십일 오후한시 이십팔분차로 경성역을 출발하게되엇다 일행의악사는 리화음악과 출신으로 는 분들로 녀류음악가로는 우리악단에서 상당히 존경을밧는이들이 중심이 되여잇슴으로 일행의연주는 각지에서만흔한평을 바들것이다 박경호(朴慶浩)씨는 개성, 재령, 평양까지 동행하야 연주케된다하며 일행의 일정, 순서는 다음과갓다

一、日程 ▲三十日開城▲七月一日載寧▲三日平壤▲四日定州▲六日宣川▲七日新義州▲八日義州

一、引率者 團長朴마리아、敎授金尙鉻

▲樂士、蔡善葉 李順永 李景淑 李善姬 韓福德 金順玉 金承玉 金恩子 金福實 明愛 車敬守 作奏金永義

伐齊爲名의 會計帳簿檢査

大邱勞動會事件續報

夕刊繼續=산기(山崎)라는 일본사람에게 학교인가운동비라는 명목으로 오백여원을주엇다는것을 진술하고 학교건축비에 일만오천원가량썻다고 대답하얏나 그러고 회(會)의장부는 소화오년십일월이후에는 한번도 검사한일이업고 그권에검사하얏다는것도 간부이삼인이리눈가름으로 검사하얏슴에 불과한것을 말하얏다 그러고대중의의사를드러 승인을 엇지안코웨독단을하얏는가하는 재판장의심문에 대하야는 일하는데방해될가하야그리하얏다고답하얏다 이와가티 김광서의 심문을마친후 부회장의 사실심문을마치고서긔겸회계인 리승훈의 심문은다음으로하기로하고 오후사시에 폐정하엿다 오는계속공판은 칠월오일에 개정하기로하엿다한다

徐震君出監

【公州】 충남 부여(扶餘)에서 공산주의단체화성당(火星黨)조직협의로작년일월에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일년륙개월의 언도를밧고 공주형무소(公州刑務所)에서복역중이든 서진군 은 지난이십팔일아츰 만긔출옥되엿는데 원적지인향남홍원으로가리라한다

新義州市內에서 冷麵中毒者續出

【新義州】 지난이십오일신의주부내매지정(梅枝町) 배운선(裵運璇)씨의 차남재헌(在憲)(二)이가랭면을먹고중독사망한것을필두로 부내에는 랭면중독환자가 속출하야 공포중에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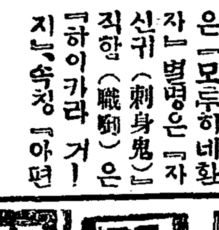
京南支局後援 鞦韆大會盛況終了

一等은(장수돌)君에게

륙월이십칠일에 개최하려든 로량진선유조합(鷺梁津船遊組合)주최본보경남지국(京南支局)후원 전긔호추천대회(全畿湖鞦韆大會)는당일비가와서 부득이이십팔일로 연긔하엿든바 이날역시비가나리여 또연긔할수업서비를무릅쓰고 예정대로 한강인도교아래서열엇다 당일 참가선수는 삼십여인이고 삼히권에나노아 각사람오분간식 뛰엿든데 제삼회권 당선자는 다음과갓다

一等(五十八尺一寸五分)張壽乭 十八金腕時計一個 二等(五十七尺三寸八分)韓大成 廣木一疋 三等(五十六尺八寸八分)柳福伊 銀盃一個 四等(五十六尺六寸五分)金四範 鍮製洗面器 五等(五十五尺五寸)金五範 机上時計一個

조반찬



학명(學名)(?)은『모루히네환자』별명은『자신귀(刺身鬼)』은 직함(職啣)은『하이카라 거지』속칭『아편쟁이』는 새벽만되면죽독자치료소로 향하야 총독부압 륙조거리로 쏜살가티몰려들어 우울한랏슈아워를 보여주고잇다 총독부코압헤 물깃잔은이풍경은 체면이체면이라 이를단속하고저 아편밀매자에 엄벌할박침을세우고오년징역까지 식히범안을준비중이라한다 밀매자라고 할것가트면 대개는 교묘한방법으로 국경을넘나들며 병의그늘에서 배회하는 하급의『뿌로커』가튼 비합법적(非合法的)밀매자만눈압헤 보이는 모양이지마는 사회적존경을 밧고잇는 의사들중에 한거름더나가보면인술(仁術)을 팔어서중독한간판을 걸고병원간판을 엇어두고 이죄류손을마지하는합법적(合法的)길재사가 잇슴을 당국은아는지모르는지

曺奉岩金命時等 豫審決定書全文 (十五)

第十五被告人徐丙松은 大正十一年三月 京城美洞公立普通學校를 卒業하고大正十二年四月 京城第一公立高等普通學校에入學하엿스나 第二學年八月頃中途退學하고其後 昭和四年四月頃演劇을 研究코저日本渡航을뜻하고釜山까지갓다가急遽豫定을變更하여 上海에渡航後中國語를研究하고 昭和五年四月頃부터 上海法界所在上海美術大學教授가되여 演劇部日本語科를 擔任하엿고其間上海居住의共產主義者 張泰俊等으로부터同主義에關한指導及宣傳을바다드되여이에共鳴하고 먼저朝鮮을日本의××에서 ××식혀서朝鮮에同主義社會를 實現코저한것인데

(一) 昭和四年九月頃上海韓人青年同盟員張泰俊의 勸誘로右同盟은朝鮮의××을目的하는結社인것을알며서이에加入하고

(二) 다음昭和七年一月二十五日同所에서 中國共產黨韓人支部組織責任者張泰俊의 勸誘로同支部는前示第十四被告人廉謙燮의 犯罪事實 (一)揭記와如한目的의 結社인것을 알면서 이에加入하고 同年四月以降五月末頃까지 五回에 亘하여 其細會에參加하엿슬뿐

라 五月一日及五月三十日의紀念日에는 上海法界에集合하여示威運動을敢行하려한等同支部를爲하여 活動하고

(三) 또는同支部에加入하는同時 同地에서中國革命互濟會上海韓人分會는 前示第十四同被告人廉謙燮의犯罪事實 (二)揭記와如한目的의結社인것을알면서 이에加入하고

(四) 다시其頃同地에서 上海韓人××同盟은 中國에對한世界各國의帝國主義를打倒하고또朝鮮을××의 ××에서××식히려는目的의 結社인것을알면서 이에加入하는等同主義社會實現을爲하여 活動한것이다

그리고 以上被告人金命時金鍾烈 金點權 金基陽 金 燦 朴春極 金良順 洪南杓 康龍燮 徐丙松의各治安維持法違反 曺奉岩의大正八年制令第七號及治安維持法違反의所爲와밋同金鍾烈 金點權 元鳳洙 金基陽 金明山 金 燦의各出版法違反의所爲는모다犯意繼續에係한것이라함

被告人 金點權은 昭和五年九月六日 京城 地方法院 에서 治安維持法違反 出版法違反으로 懲役一年에 被告人洪南杓는 大正十年九月 二十九日 高等法院에서 大正八年制令第七號違反으로懲役二年을言渡되여 各各其刑의執行을終한것이요 被告人元鳳洙는昭和六年五月二十六日 海州地方法院에서 治安維持法及出版法違反으로 懲役一年及罰金二十圓을言渡되여 五年間右刑에執行猶豫를밧고 目下執行猶豫中의것이다

以上被告人의所爲中 被告人金命時 曺奉岩 洪南杓 康龍燮 徐丙松의朝鮮의 ××及朝鮮의私有財產制度를 否認하는目的의結社에加入하고 其目的遂行을爲한點은 治安維持法第一條第一項後段 第三項刑法第五十四條第一項前段에 被告人金命時金 燦朴春極金良順曺奉岩의朝鮮의 私有財產制度를否認하는目的으로外 其實行에關한協議를한點은 治安維持法第二條에 被告人金命時 曺奉岩 洪南杓 康龍燮徐丙松의 朝鮮의××을目的으로하는結社에加入하고 其目的의遂行行爲를한點은 同法第一條第二項에 被告人金命時의 朝鮮의××及 朝鮮의 私有財產制度를否認하는 目的의結社組織을幫助한點은 刑法第六十二條第一項 治安維持法第一條第一項前段第二項 刑法第五十四條第一項前段에 被告人金鍾烈金點權 曺奉岩의同罪의 目的의結社를組織한 其目的實行行爲를한點은 治安維持法第一條第一項前段第二項 刑法第五十四條第一項前段에 被告人金基陽金燦 朴春極 安鍾珏의同盟의目的으로其實行을 煽動한點은治安維持法第三條에 被告人金點權의右同一의目的으로 其實行을協議한點은 同法第二條에被告人金命時 曺奉岩 洪南杓 康龍燮의 朝鮮의 ××을目的하는結社를 組織하고其目的의遂行行爲를한點은 同法第一條第一項前段에 被告人金燦의朝鮮의 私有財產制度否認의目的으로其實行을 煽動한點은 同法第三條에 各各該當하고 또被告人金命時 金鍾烈、金點權、金基陽金燦、朴春極、金良順、洪南杓、康龍燮、徐丙松의 叙上의所爲는犯意繼續에 係하는것으로서 刑法第五十五條를適用할것이요

幼兒放置한父母와 線路에코고는少年

南北兩處에一日兩個鐵道事故 무서운放心、寒心한無智

이십칠일 오후여섯시십분 경긔동차케구백륙십이호가 가수원(佳水院)과대전(大田)사이에서 대전을 긔점으로한 팔키로되는 지점에서서살쯤된 조선어린아이가 선로에잇는것을 발견하고 급히정거하얏스나드되어라이푸가ー드로 머리를다쳐서즉사하얏다 어린아이는 대전군류천면 강대리(大田郡柳川面康岱里)강봉주(姜鳳周)의장남 귀선(基善)(三)으로서 그날부모가태리고 농사러에나와서 놀다가는대로 내버려두엇다가 그러케된것이라고한다◇

이십칠일 오후세시 오십분경문봉(文峯)과신상(新上)사이에서 원산(元山)을 긔점으로하고 약팔십륙키로되는지점에서한남정평군 춘류면부암리(咸南定平郡春柳面富岩里)리호영(李浩永)(五)이라는소년는 풀먹이는소를 듯에내다매노코 선로에서낫잠을자다가 제오백사십일 렬차에치여중상을당하고 방금티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

大型뻐스運轉

경성전긔회사 에서는 지금까지는경성부에서 인계한 소형(小型)뻐스를 운전하고잇엇으나칠월십일경부터는 새로사드린 대형(大型)뻐스를운전할터이라는데 이것은정원이 이십오명은탈수잇는 대형(大型)으로 속력도 지금것보다는훨신빠르다고한다

夏期保健體操班

억센朝鮮의建設

억센朝鮮의 建設을 목표로한 本社의 保健運動은 今夏로서 第一步를 擧하게되엿다。 이事業의 第一着으로 우선 全朝鮮 各地에 保健體操班을 派遣하기로되엿다。 班員은 京城各中等 以上學校 在學生中으로 志願者를 뽑아 五日間 保健體操의 講習을 行한後 各其歸鄉하야 體操班을 組織케하고 그成績을 考査하야 賞을 授與할것이다

保健體操班規定

一、參加 京城市內中等以上 男女學校在學生中으로 夏休에體操班을 組織指導할意思가잇는者

二、申請 住所、氏名、年齡、學校名、學年、體操班開設豫定地等을 記入하야 朝鮮日報社로申請할일

三、講習 第一回 七月三日부터 五日間(時間、場所追定) 第二回以下追後發表

四、申請期日 七月三日

五、定員 第一回 二百名

六、敎材 無料提供

七、體操班組織時에는 될수잇는대로 本社支分局의後援을어들일

八、考査 體操班成績은通信記事、寫眞、出席簿、支分局長의證明等으로함

九、賞品 成績이優良한班員에게는 紀念메달賞品을授與함

主催 朝鮮日報社

數千學生總動員

奉仕의夏期休暇

人生問題

무신론자(無神論者)와 그 찬동자

어떤 집회에서 무신론자 한 사람이 신의 존재를 밋지 안는다고 루루히 설명하엿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그 말을 찬동하는자가 업섯다 커는 초조한 생각으로 한번 크게 소래처 말하기를 「현명한 여러 분중에도 나와 가티 신의 존재를 밋지 아니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업스리라고는 생각지 안이합니다」하며 찻중의 찬정을 최촉하는말머리를 던졋다 한 부인이 이에 응하야 대답하기를 「선생님 실례올시다 마는 그는 선생님 하나뿐이 안이올시다 여긔 누어잇는 고양이도 그러한 설명을 찬성하고잇습니다 그러나 저 불상한 즘생은 그러한 말노 표창하지 안이하는것만이 선생과 갓지 안이한 점이올세다」하고 풍자적 언사로 무신론을 변박하엿다 한다

井上英語講義錄

立身第一步는英語

곳英語를始作하라

日本第一의英語講義는이제 七月부터 開講됩니다。少年이나 青年이나壯年이나이 絕好機會를노치지말고即刻井上先生에게 就하야英語에熟達하시오。

葉書로 申込次第 內容見本進呈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十三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參〇貳八八番

開業廣告

今般開業함에際하와 各種 新鮮한料理를써 僉位의便宜하심과 適口經濟를 圖키爲하야 特別한 方式으로 本月二十五日에開業하엿사오니照亮하시고 來臨하심을 千萬仰望하나이다

料理種類

비빔밥 大邱湯 곰국밥 연계백숙 가리 白飯 各種酒肴 迅速配達홈

京城公平洞二番地

大連館

電光一四四〇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 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는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함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

厚司型雨合羽尺二尺四寸三圓四十錢부터

學生用 一尺八寸一圓부터

紳士用レインコート 七圓부터

京城光熙門外新堂里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一〇一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恩給

長期短期極有利 立替照會細答

京城按恩洞一六〇

鄭商會

種子價目表進呈中

京城白菜 小一斗三圓五十錢 一升一圓

芝罘白菜 一升二圓六十錢

朝鮮大根 小一斗四圓 山東白菜 一升二圓

開城白菜 小一斗三圓 直隸白菜 一升三圓

宮重大根 小一斗四圓 包頭蓮 一升三圓

先金으로振替京城二一五六二番

京城貫鐵洞

朝鮮種苗貿易社

產金家의福音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金銀 地金 分析

合資會社 杉山商會

六月三十日(金曜)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遊山歌 二、저비가 三、新遊歌 朴瓊玉 金一朶紅
◇同〇時四〇分 뉴ㅡ스
◇同二時 家庭講座 玩具의選擇과簡單한製作法(二) 兪亨穆
◇同四時 뉴ㅡ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劇 異常한라듸오 童劇硏究會兒童 指揮 金鳳冕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글잘짓는法과日記잘쓰는法(二) 李定鎬
◇同七時 뉴ㅡ스
◇同七時三〇分 講話 日本農士學校를보고와서(一) 朴駿榮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傳中 河弄珠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連續古談 常平通寶(三) 朴寅成
◇同九時 音律 靈山會相中 一、三絃도도리 二、밋도도리 三、下絃 四、念佛 五、打令 六、軍樂 七、界面도도리 八、兩淸 九、羽調도도리 玄琴 [illegible] 伽倻琴 [illegible] 楊琴 [illegible] 大笒 高永根 細笛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A) 時報 氣象通報 뉴ㅡ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六月三十日(金曜) (波長三二三米)
▲午前六時 (A)ラヂオ體操▲同六時三〇分 (A)基礎英語講座(三十六) ▲午後〇時五分 ジャズ 京城バンドラオリオ▲同二時 家庭講座 夏分に於ける兒童の敎育(二) ▲同六時 (A)コドモの新聞 ▲同六時二〇分 (A)うた ▲同六時二五分 (B)基礎佛蘭西語講座(二十四) ▲同七時三〇分 (A)活動寫眞獅子吼大會

家庭講座 午後二時
玩具의選擇과簡單한製作法 兪亨穆

아이들은 노는것이 일이며生活의原動力이기도합니다 어른들가티 일에拘束이나 또는그일에依하야 무엇을엇고저하는野心이업시오직自由로운마음과 자미로움이 잇슬따름입니다 그遊戲에依하야 精神이發達되는同時에身體의發達도도움고 或은朋友와의交際 協同 服從同情갓흔社會的道德의發生을보는것입니다 그런데이러케貴重한아이들遊戲에는 엇떠한種類의道具를要합니다 그것이即玩具인데 그中에는危險한것이만이잇습니다 적어도 玩具는敎育上有效하며 技術的美的이며 衛生上危險이업시堅牢하며 갑시싸지안흐면 아됩니다 이런意味에서 父母自身이맨드는것도 조흡니다 처음엔撰擇그리고간단한製作法을몃가지말슴하겟습니다

라듸오學校 午後六時二五分
글잘짓는法과日記잘쓰는法 李定鎬

장래에 문학가가되지안트라도——실업가가되던지 또는기타 무슨직업을갓던지 자기의생각과의견을고대로 남에게적어보일만한재조는 반듯이가져야합니다 또일긔를하로하로진실하게잘해나가는사람은 자연 문장의연습도될뿐아니라 당자의품성을닥거나가는데 가장큰도움이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글은어떠케해야잘짓게되나? 또일긔는엇더케해야잘쓰게되나? 거기대한몃가지의요건과실례를들어말해보려합니다

講話 午後七時三〇分
日本農士學校를보고와서 朴駿榮

農村振興은 健實한靑年의努力에在함은 勿論이다 方今日本에잇서서는 朝鮮以上으로農村問題에對해서 모든사람들이 一齊히關心을두고잇다 우리東洋은 農民의나라며 農道가大本을 세우고잇다 그러면 農道란무엇이냐 即農道를學理的으로 實踐的으로硏究하고敎授해서 나가는곳이 即日本農士學校이다 日本農士學校의創立 日本農士學校의趣旨 엇더한方法으로 敎授를하고잇는가 日本農士學校生徒의 工夫하고잇난模樣 參觀後의感想

◇明日順序◇ 七月一日(土曜)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獨唱 파피아노 헤너ㅣ 李仁範 피아노獨奏及伴奏 崔聖斗 ▲同〇時四〇分 뉴ㅣ스 ▲同二時 家庭講座 玩具의選擇과簡單한製作法(三) 兪亨穆 ▲同四時 뉴ㅣ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異常한새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글잘짓는法과日記잘쓰는法(三)李定鎬 ▲同七時 뉴ㅣ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 日本農士學校를보고와서(二)朴駿榮 ▲同八時 唱劇調 金南洙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長恨夢 金肇盛 音樂伴奏 ▲九時 歌曲(男唱) 男唱 河圭一 玄琴 金又堂 楊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A)時報 氣象通報 뉴ㅣ스 翌日프로그람發表

조혼이나은이폐단

리혼하려다못한안해집에두고 객지에서사랑구해임신이개월
◇동거함이가할가부할가

남에게말할수업는 쓰린가슴을 움켜잡고 애닯흔날을 그날그날보내는젊은이들이 비밀을품고 해결할수업는 문제를상의하기위하야 본란에다엇지하릿가를설치한이래로 독자들이 그야말로글자 그대로 열광적환영을 바드며하로에 이삼여통의 난문제가편집책상우에싸히여 내용이거진잣흔것은 재차해답치안흔것도 이섯습니다 이와갓치만적하는중에조혼(早婚)에 대하야 압길을 엇지할줄모르는 젊은남자 젊은녀성의 애닯흔하소연이제일만히들어와서 조선의사회적 일면상을 여실이 알니고이섯습니다 그리하야 이러한 문제도 여러번각각 다른사정에 의하야대답하엿습니다 일부다처(一夫多妻)주의를배격하는 오늘날에잇서서 본처를리혼하려하엿스나 본처의 너그러운 마음인지 인습에저즌마음의 발작인지는 몰으겟지만 남편에게 다른녀성과 갓치살자는 말을하는동시에 현재결혼부인이 보기실혀서 이미객지생활한지 사년되는 오늘날에 그남성에게 개창에원망의 씀을쑤어서이미 그녀성에 임신이개월이되고 말자한남자로 리혼할수업는결혼한 녀성과 리상이맛는 임신이개월이되는 그녀성과 를한집안에서 다리고살어도 조켓는가하는 『엇지하릿가』가 들어왓슴으로 이문제를가지고혼자서대답하는이보다 사회인사 몃분에게 해답을 뭇게되엿습니다 그래서아래와갓흔 이대이의동점적해답을보게되엿습니다 여기대하야우리는독자대중으로서도엄중한비판이잇기를바람니다(C記者)

問

커는금년이십일세된청년이온데커는의즉십오세때에부모님들의엄명에의하야 그때 모다극력반대하얏사오나하는수업시나보다나이가한살더먹은녀자와 결혼을 하얏습니다 그때는 아모철이 업슬때이엿습니다 그럭저럭지내는 동안에 두사람사이에 열매가 맷게되여지금은 여섯살이나되는 딸까지잇게되엿습니다 커는지금집을떠나서 객지생활을한지가발서사년재나됨니다 그녀자와는 뜻이맛지안코 또무식한녀성임으로 대단히답답함으로 리혼을하라고하얏드니 그녀자의말이 리혼하는것보다 자기는집에다두고서 또다른녀자와 결혼하야 리상적가정을일우고 살어도말치안켓다고 애원할뿐이잇습니다 객지생활을 하는중에엇던녀자와교제하게되엿습니다 또다른녀자와 생활을하야도 도덕상으로또는 현대조선의환경에 빗취여보아서 당연한것입니까 커는과연엇더케 하여야되겟는지 알수가 업서서지금 머리를알코잇습니다 지금사랑을속삭이는애인은벌서임신이개월이상이온이 일을엇지하면조켓습니까(咸南文川空想者)

타협이된다면 가티사러도무관
먼저사회제도를개정하야
同德女學校長 趙東植氏談

지금드러보는것과가튼 사건이 열사람이면 륙칠명에게서는발견케되는것입니다 물론남자의 잘못이겟지요 지금말한것과가티 결혼한부인은리혼하기를시려하는동시에 자긔남편에게는 다른녀성에게장가를드러도관게치안타고하고 그반면에그남성에게 사개년동안의 객지생활에서사랑의상대가생기여서 이미임신 이개월이 되엿다고하니 여기에는 남자의결심여하로 결정되겟습니다 다만은 현재안해를 리혼할수가업고 만일리혼을한다면 그녀성은엇더한 최후의길을 밟을는지도 모른는일임으로 세사람의행해만된다면 엇지할수업시 가티사러야 되겟지요

이러한문제를생기는원인은 먼저우리의사회제도를 고치지 안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함니다 왜그러냐면 남자는몃번이라도 결혼할수잇스나 녀자는 한번결혼하게된다면 [...]키고말 [...]순된 원입니다 남, 녀가다가튼 사람인이상 남자는 묵인하여주고 녀자에게만구속을준다는것은 퍽으나 생각할 문제입니다 만일에사회제도가 남자도녀자와가튼구속을밧게된다면 최상에서 이러구저러구하는 이청의복잡한문제가생기지안을것입니다 그러케되지를못하엿슴에

가티살면 풍파가생겨
—결혼한부인과살라—
中央基靑 玄東完氏談

근본적으로 억그러진 문제를 [...]시다 어그러진문제를 가지고올코그른것을무엇이라고말하겟습니까 엇엇마건저의친구가운데에서도 그러한실례가 한아생기엿습니다 그친구가다른녀성과관계가생기여서 먼첨결혼한부인과 문제가 생기엿든바 부인은가티살아도조타는협의아래에서다른녀성과결혼을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일시적문제로도라가고 오늘개월도되지못하여서 그가정에는 불평의바람이불기시작하야 아츰저녁으로쟁쟁거리는큰말소리가 끗치지안라가 기여이헤여지게된일이잇습니다 이러한것을본다드라도 말노는가티살자고하나 그것이그러케 용의하게해결될문제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이문제에잇서서는 단연이한쪽으로기우러지어야되는동시에 계산자로이러니저러니하는것보다 당사자가잘처리하여야만 될것입니다 정의상으로보아서는 객지에서 사랑을속삭이여서 임신이개월이된녀성을 엇더케든지처리를하고 엇더케결혼하엿든결혼한부인과가티사는것이 맛당이취할바도리라고생각합니다

杏林界消息

◇鄭在雄氏＝경성의학전문학교부속의원에서 외과피부과에 근무하든 정재웅(鄭在雄)씨는 며출권에 시내청진동(淸進洞一五一)에 개업하고일반환자를진료한다고한다

마음변할때마다 결혼하면큰문제
◇둘재녀성의마음이약하다
梨花專門 金活蘭氏談

이문제를가지고 이러케하여라 커러케하여라하고 판단은내리기어렵습니다 조혼을하엿든엇더한결혼을하엿든이미 사람의결정인 어린아이까지잇지안습니가 왜시른 안해일것가트면 아이까지잇게되겟습니가 사람의마음이란 작구변하는것이안이겟습니가 언제든지새것을보면 넷것은실코새것을조와하게됨니다 만일사는물건가트면돈을주고사면 고만이겟습니다만은 결혼문제를마음이변할쌔마다 결혼을한다면 일평생에얼마나결혼을하게되면 그쌔그쌔마다 한숨의눈물을짓는녀성이 얼마나만흘것입니가 그와맛찬가지로지금그남성도리혼을한데로하려니무식하니무엇이니부치는버리게되다면그녀성이가는길은 어듸이겟습니가 그러고현재그문제이겟습니다 만일그구녀성을 남성을상대로련애관계를 맷고잇는녀성이 남성의말을너머나 복종하는것입니다 자긔가엇던한주견을세워가지고 그남성과 관계를매젓다면 엇더한판단을하여야할것입니다 도커이한집안에서 가티살수업는 문제인만큼 양단간그녀성이 결정을내려야될것입니다 만일그러치못하고 어리석은녀성이라면세사람이 가티동거하여도 별일업겟지요! 그러나이것은대단이어려운문제이만큼 남성보다도 그녀성이잘판단하여야되겟습니다 물론이러한일이그사람에게만잇는문제가안입니다 사회에서무엇이니 무엇이니하고떠드는 사람도 두사람 세사람씩 녀자를 더리고 각각살님을식키고 살지를안습니까 이와맛찬가지로 물질의 여유가잇다면(떠로살님을하도 엇절수업는 최후수단의한가지입니다만은엇젯든남자로는 한번결혼한녀성과 쌋나다나한번사려나야가는것이조켓지요 다른녀성은별다

리혼치못함은 인습에저즌까닭
동거하여도무관
徐廷禧氏談

글세요결혼한녀성으로서 시려하는남편과리혼키시려하는것은넷날의묵어운짐을지고잇는인습때문이겟지요 요새이잇서서 리혼을한다는것은 그러케수치라고는 인정할수업습니다 불론남성이현재부인을엇더한처리를하지못하고다른녀성과련애를하야임신까시하게되엿다는것은 남자의경솔한행동이라고 보겟습니다 여긔잇서서 남성이엇더케든지하여야 되겟는데 엇더한편을 온으라고합니까 온을수업는 반면에 결혼한부인을 리혼하려도 그녀성이 시려하며이편에서는이러타할만한구실이업스면 현재의법률로는 리혼을할수가업는것이 안입니다 그럼으로엇더한 편의 녀성이 한사람이라도 각성이업는동시에 쌍방이가티 사려도조타게되면 가티사려도조켓지요 하엿든 모순된세래를반은것입니다 이문제만하드라도 남성은몃번이라도 결혼을하여도 명예에 관게가업시 엇더한사업이라도 할수잇지만 녀성들은한번리혼을당하게되면 십의팔구는 세상의손구락질을밧게되는 우수운 일이안입니다 먼저무엇보담도 커커묵은 인습을게트려여새야되겟습니다

큰가요 신녀성보다도 구녀성이혀신나은사람도만흔데요

樂壇의豪華版
槿花納凉音樂會
今夜八時正刻에 오라! 公會堂으로!
槿花學友會主催、本報學藝部後援

금삼십일밤 시내공회당에서 열리는 근화녀학교학우회(槿花女校學友會)주최와 본사학예부후원의『근화납량음악대회』는금년순서이래의 음악회중에 종합적내용이 충실하고풍부하기로 가장손꼽지안을수업다 실로 금년악단의 성사이다 할만하다

◇

우선 출연악사들을 보더래도우리악단에서 전부터 명성이놉흔분들 홍란파(洪蘭坡) 홍성유(洪盛裕)김원복(金元福)씨며 새로히 우리악단에 첫인사를하게되는이로 리영세(李永世) 안보승(安輔承)량씨가 잇서 신구악인이 한자리에올한 음악을들려주게되엿스니 이번 음악회야말로 우리음악회로서는 드물게보는호화판(豪華版)이라하겟다

出演樂士는 △△△△△ 名聲놉흔諸氏
◇異彩띈바이올린三重奏

洪蘭坡 洪盛裕 金元福 李永世 安輔承

이제악사를소개하면 홍란파 홍성유씨의바요린과 김원복씨의 피아노는 임이세상이 갓가히한지 오랜터임으로더소개할바이업고 이번긔회에 처음으로 우리악단에나오는 안보승씨의 성악과 리영세씨의 바요린에 대한 긔대가크다 일컨에도소개한바와가치 안보승씨는 동경제국음악학원(東京帝國音樂學院)을 나온수재로 장래명가수로촉망이 만흔 테너이다 특히 풍부한성량이 그의자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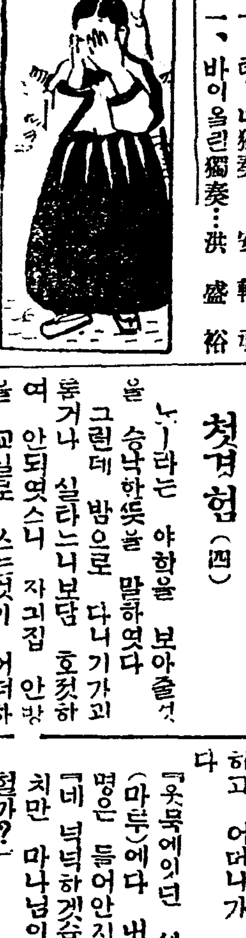
◇ 리영세씨는 작년동경고등음악학원을 졸업하고 다시궁내성악사『구보』씨 밋헤서 연구하다가 이번봄에 돌아온『바요리니스트』이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그의열성은 긔교에도탁월한지경을 개척하기에 부족함이업스려니와 음악의진정한 리해를깁히가진 학도로써 학생시대부터 호평을밧든 터이라하니 그의연긔는상당이 농난한것을 집작할수잇다

◇ 그러고 순서중에서 홍란파홍성유 리영세씨등의바요린 삼중주는우리악단에서는 처음되는 시현으로이채를나타내일것이다

◇納凉音樂順序◇

◇第一部
一、校歌……槿花女學校合唱隊
一、表情遊戲……槿花幼稚園
一、女聲三部合唱……京城保育學校
一、테ㅣ너獨唱……安輔承
一、바이올린獨奏……李永世
一、쏘푸라노獨唱……李順甲

◇第二部
一、바이올린三重奏……洪蘭坡 李永世 洪盛裕
一、피아노獨奏……金元福
一、테ㅣ너獨奏……安輔承
一、바이올린獨奏……洪盛裕



童話 무서운결심
梁在應

오래된옛날(太古)어늬나라임금의 딸이 잇섯습니다 그는 엽풀도어엽부고 마음도 착엿습니다

그리고 정신이조코총명하야 하번들은것을 이저버리지아니하고 무엇이든지하려고 하든일이면 힘이들드라도 그여이하고마는 굿세인마음을 가지고잇섯습니다

그러함으로 아버지되시는임금과 그어머니는 매우사랑하시엿고 여러사람들이 모다그를 칭찬하게되엿습니다

어늬해봄이엿습니다 쏫듯한봄날이엿습니다 건는산에는아른아른아즈랑이가 어리여잇고 편편한언덕에는 색스러운쏫이소리업시옷고잇섯습니다

바다(東海)우에는 한점바람도업시 고요하야 새파란 물결이 잠자는듯이 평화스러웟습니다 이러케도평화스러운날 임금의쌔님은 적지안은 배를다고 여러사람들과함께 잔잔한 물우에 돗(帆)을달고 고흡게흘으는물결을따라 멀니이웃나라(隣國)로 려행(旅行)을가개되엿습니다

바람과 물결의 성미(性格)란 알수업는것입니다 하로동안은바람이잠자고 물결이고요하더니 배가뭄러면서 나오자 갑자기사나운바람이 일어나며 바다를 사람이라고가는 배가그마를속이뒤집히여임금의쌔님과 여러사람들은하는수업시

물속

으로파못처엇습니다 가여운일이엇습니다 여러사람들은 영원(永遠)이 이세상을떠낫습니다

×

가여웁게세상을떠난 마음이 착하고총명한임금의쌔님은 비록몸은죽엇스나 령혼(靈魂)은 훗더지지아니하고 원통이죽은것이 한(恨)이되여 조그마한 새가되엇습니다 조그만새는바다가에잇는 나무우에다집을짓고 날마다——날마다——아츰부터 커녁까지 조그만 모래바다와 흙덩이를입으로물어다가 바다물에던졋습니다 들메이려고

『바다야! 메여커라! 바다야! 메여커라!』

이러케 날마다 날마다 바다물에이러고애를쓰게되엿습니다 바다물도 메커지지말고 그렇든사람도 바다물에여 이다우다 공연이애를쓰게되엇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바다가메여지겟습니가? 그러나한번해보려는결심은 누구나 숭잔할만한일이라고하겟습니다 ——끗——

童謠 달팽이
曉人

달달달달 달팽이 예쁜달팽이
배채납새 우에서 갈곳을몰나
작은집을 지고요 고개느리고
이리커리 갸웃둥 갈곳찾지요

◇……◇

달달달달 달팽이 작은달팽이
배채납새 뚝떠서 들고보자니
검게느린 목아실 움츠리고요
달달달달 달팽이 떨고잇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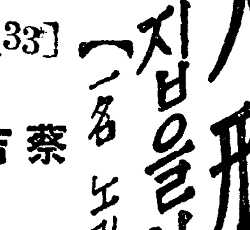
달달떠는 달팽이 작은달팽이
누나심은 화초밧 봉선화닙헤
오래오래 살나고 노아주니까
다시고개 갸웃둥 갑버하지요

童謠 풀닙배
金泰午

혼자서 놀자하니 심심하기에
풀닙으로 배한척 맨들어서는
우리집 알련못에 띄윗드러니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니면서
건너편 언덕으로 저어갑니다

◇……◇

소금쟁이 뱃사공이 던졋와서요



人形의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33]
蔡萬植 作 吉鎭燮 畵

첫경험 (四)

『노ㅣ라』는 야학을 보아줄것을 승낙하는뜻을 말하엿다 그런데 밤으로 다니기가괴롭거나 실타느니보담 호젓하여 안되엿스니 자긔집 안방을 교실로 쓰는것이 어떠하냐고 물엇다

권도부인은 두말업시 조타고하엿다 그리고 방을 한번둘너보앗다

『이칸이라도 넘은 이칸잉개루 넉넉허지라우』

하고 어머니가 방을 설명한다

『웃목에잇던 세간이나 대청(마루)에다 내다노면 삼십명은 들어안지……』

『네 넉넉하겟습니다……그러치만 마나님이 괴로우시잔혀갈가?』

『아니요 나두 우리딸하괴 글을배우지……』

네사람은 모다 우섯다 권도부인은 도라가면서 개학할날자를 내일다시와서 알니어주마고하엿다

사흘후에 야학이 시작되엿다

웃목에는 조고만한 칠판을 걸어노코 주위치에서 석유한 양철과가티 가커온 큰 람푸를 방 한가운데 걸어노앗다 책상도 걸상도 업섯다 매우 불편할줄알고 무슨도리가 업슬가하여 여러가지로 궁리하여보앗스나 필경 어쒸하는수가업섯다

다만 선생용으로 조고만한 교탁한개를 친정집에노코 그우에다 출석부와 분필갑을 올녀노앗다

야학생은 일직부터 우며무역 모혀들엇다 급한이는 시간권 한시간에 오기도하고 어떤이는 아홉시가 다 되여서 온이도잇섯다 또 엇던부인은 서너살이나 먹은 어린아이를 업고와서 한바탕 울니기도하엿다

그들은 대개가 삼십이넘고 사십이 넘은 가정부인들이고 그밧게 젊은색시 엣사람과 처녀색시도 두엇이나 잇섯다

그들은 야학공부보담도 선생인 노ㅣ라에게 흥미가 쓸니어 온사람이 만히잇섯다

그리고 노ㅣ라와 보통학교의 동창이요 요컨에 차저왓든 동무가운데 하나인 옥순이라고 불으는 여인도와섯다

이 여인은 이곳에서 갈으키는것이 보통학교의 정도에도 밋치지 못할터인데 무엇을 배우자고 왓는가하야 노ㅣ라는 이상이 생각하엿다

시간은 여덟시로부터 열시싸지두시간

학과는 언문도 몰으고 아조 깜깜한부인들과 언문을아는 부인들을 갑반과을반으로 갈너 갑반은 언문과 간단한 산술을 갈으키고 을반은 가사(家事)와 조곰 급이놉흔계산법을 가르키기로 하엿다

야학생이 거진 모이자 례의 권도부인이 위선 교탁압흐로나섯다 나서서는 「타에 팔을고여 이마를집고

『다가치 기도드립시다』

하엿다 노ㅣ라는 식급허서엔ㅣ히 서서보앗다

야학생의 엣사람은 이마를 집고 머리를 숙이엇스나 다대수는 그냥 안저잇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와가치 하날에보혀 귀한학문을 배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허옵나이다 바라건대 이것이 압흐로길게 게속되어 다가치하나님아버지의 덕을 사모하는 자매가 되게하여주시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홈으로 비옵나이다 아ㅣ멘』

두어마듸 아ㅣ멘의 합창이 낫다

노ㅣ라는 슬그머니 화가 동니엇다

권에 한(韓)목사가 자긔에게 종교란 이런것이니 주면이니 이야기를 들니어 주면서 결국 한밤의 요렴은 안해로씨의 덕이 남편에게 잇대로 복종하는데잇다고 한것을 생각하엿다

그런데 지금 이 권도부인은 야학을 한다는 일홍으로 무지한 여러 여자를 모아노코 하는것이 야학보담은 야소교의 권도에 더 힘을쓰려고하는듯하엿다 그리하야 결과는 이 부인들에게도 여자의 덕으로 남편에게 절대의 복종을 갈으키려는것이라고 노ㅣ라는 생각하엿다

그는 야학은 당장에 해산하여바릴가 생각하엿다 권도부인은 기도를 맛치고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세상 만들……』

하고 이야기를 쓰내엿다

노ㅣ라는 그연흥로 닥어섯다

가정의학
관절염을 엇지고칠가

문 커는십칠세의남자이온데 작년일월부터 관절염류마지쓰로 고생하는데 병원약도쓰고 한약도썻스나 하등효력이업습니다 그리고금년부터는 가슴이아픔니다 책상에서글을쓰면 더욱심하오니 이중세도 이병으로인하야그러난지 하교하야주시며 약은아도파니일둔주사를맛는것이엇더하오며 그리고 온천으로가는것이 엇더하온지 또는다른處方이잇사오면 지시하하교하야주심을바람니다 (端川 一愛讀者)

답 가슴이아픈것은 진찰을안이하고는 확실한말슴하기어렵습니다 좌기처방약을 내복하시고 동시에 주사를마즈십시요 온천에가시는것은 조흔게입니다 만약온천에가시거든 내복약만잡수십시요

(처방일)중탄산나트리움 三、〇
지아스타ㅣ케 〇、八
메비어스 一、五
아토포안 一、五
우 일일삼회식 식후분복

(처방이)메리곤 一〇瓦
사루소부로카논 二〇瓦
우 매일고대로 정맥주사

(주의)랭거(冷居)와음주(飮酒)를마시고 국부(局部)를뜻뜻이하게하십시요

醫學博士 朴昌薰

農業論 (四)
土地利用과 農業經濟의 硏究
李勳求

今日本農業界를 보면 一九三一年度에 金肥의 消費高는 二億九千二百萬圓의 巨額에 達하고 또 그 數量으로는 實로 五百八十四萬餘噸에 達하엿다 이것을 平均으로 보면 每農家에 十八圓餘가 되는 셈이요 또 上記數字中에는 「切草」로 드러가는 金肥量이 包含되지 안이하엿슴으로 實際每農家平均金肥用量은 이보다 훨신 큰 數字를 나타내일 것은 無疑의 事實이다 이와가티 朝鮮農家는 리비히(LIEBIG)氏法則의 作用을 免하기 爲하야 努力하고 잇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 金肥作物은 氣候關係로 因하야 全羅南北과 밋 慶尙南北에서 만히 栽培되여 잇다

第三節 家畜及畜產

歷史上으로 考察해보면 朝鮮에서 家畜의 飼養과 밋 畜產業은 極히 幼稚한 것이다 이 數千年동안에는 家畜業의 興亡과 盛衰가 잇섯던 것도 우리가 잘 알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現時에는 家畜業이 副業的 地位로 떠러지고 말엇다

家畜과 家禽의 種類는 相當히 만하여 北溫帶諸國에서 發見할수 잇는 것은 거진다 飼養되여 잇는 것으로 그中에 牛, 馬, 豚, 鷄, 山羊, 兎, 鴨等이 普通으로 發見되는 것이다 朝鮮의 氣候는 此等家畜及家禽飼養에 適當함으로 相當한 管理와 飼養의 方法을 講究하면 繁殖이 容易하다

朝鮮家畜飼養業의 顯著한 特徵으로 말하면 (一)家畜數에 比較하야 牧場用地로 쓰는 土地面積이 極히 적은 것이다 事實上 土地가 極貴함으로 家畜飼養의 目的으로 쏘 牧草만을 栽培하기 爲하야 使用할 土地가 업는 것이다 米國에서 普通으로 發見되는 中西部地方 大平原地帶의 廣大한 牧場이나 또 西南部地方의 所謂 「렌치」 放牧場과 가튼 것은 到底히 夢想에도 볼수가 업는 것이다 朝鮮의 家畜飼養은 事實上 農家婦女와 밋 兒童의 손에 맷겨잇는 것으로 그 飼料의 大部分이 耕地의 副產物과 山林의 狹小한 草生地와 밋 野草生地等 구여지의 土地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안일 것이다 特히 農家에서 普通으로 飼養되는 牛의 飼養은 그 一例이다 (二)또 朝鮮의 家畜飼養은 牛의 飼養이 第一重要한 것이다 그 理由는 農家에서 耕牛를 飼養하야 農業用勞動力을 利用하고 또 牛肉을 엇기 爲한 두가지 目的에 依한 것이라고 하겟다 그러나 普通農民間에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요 또 牛乳의 使用은 農民들에게 한 奇異한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안이다 이 點은 朝鮮의 家畜飼養 特히 牛의 飼養이 그 根本目的에 잇서서 歐米各國과 別異한 것이라고 안이할수가 업다 此과 此러가 隊

本人의 意見이라면 多大數의 農民은 好奇心을 자어내여 어느 程度다 그럼으로 各種牛畜生產作物은 맛볼것도 업시 普通農家에 알이여지지 안이한 것이다

朝鮮牛는 朝鮮農業經濟의 組織에 잇서서 한 重要한 組成分이다 其實朝鮮種牛는 農場經營에 使用하는 데와 밋 牛肉生產者로 아주 理想的인 것이다 專門家들은 아라비아에서 良馬가 長久한 歲月間에 造成되여 나온 것과 가치 朝鮮에서 朝鮮牛가 長久한 歲月間에 人工淘汰로 된 것이라고 한다 役肉兩用의 牛로는 非但極東뿐만이 안이라 全世界를 떠려놋코 보아도 朝鮮牛가 極히 優秀한 地位를 占領하고 잇는 것이다

甘雨지내 苦雨!

昌馬一帶에는 坪當九斗雨量
◇…移秧에豐足

【馬山】 경남마산부중심으로 창원군(昌原郡) 일대에는 오래동안의한발로 인하야 이앙긔가 느저가는 오놀에도 이앙은일이 되지못하야 농가를우려케되매 하늘만바라다보고 농가비탄이자못소연하든바 지난이십륙일부터 나리든비는 평당구두이상의대우로서 천봉답이 안이면 이앙에흡족하겟슴으로 나리는 우중임을 무릅쓰고 사야에이앙청이 열진다한다

것볼놈이 기지못한다고한다

永同에도 時雨洽足
四面에擊壤歌

【永同】 충북영동지방에는오래동안을두고 더위만심하야 농민의가삼을 태워오든 가믐(旱魃)에 농가에서는 하늘만바라보고비를 기다리든중 이십륙일 오후부터 제우가 나리엿스나 농민은더욱 가뭄중조나 안인가하야 애를태우든바 오후녈시부터 패연이 나리기시작하야 익일인 이십칠일 오후열시까지 팔십륙미리의 호우가 나리여농촌일반은 태우든가슴을풋고 흡족한비에 격양가를부르며 이앙에 분망중이며 계속하야이십팔일에도우긔가잇다

天安郡下에도 移秧에充分
各線交通杜絕

【天安】 지난이십오일부터나리기비롯한강우량은일백칠십일미리가된다는바 이번비에는 그간못심엇든 천수바라기논에 싸지 모든농토이 비에 께 되엿스나 자동차의교통이 두절된곳은 다음과갓거니와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나리는중이다

天安鎭川間 天安良岱間 天安公州間 天安溫泉間

禮山地方에도

【禮山】 충남예산군하에서는 월여를두고 한재가심하야 농작물이모사지경에잇더니 지난이십륙일 오후일시부터 삼일가 내린 우량이 모내기에 풋족하야이앙이 족할되리라하야일반농가에서는

鎭川에도暴雨

【鎭川】 충북진천지방에는오래전부터 비가오지아니하야 일반농민은 하지가지나도록 이앙을 하지못하야근심하든중 지난이십륙일낫부터 웃치지안코 비가나리더니 이십칠일 저녁부터 이십팔일아침까지 폭우가 나리여 농작물은피해가업스나 각지동차선로가 두절되여 우편물까지오지못햇스며아직도개이지안코비는계속하야나리는중이다

群山地方에는 雨量二百미리
府內浸水家屋不少

【群山】 이십칠일오전여덜시싸지의 우량이 일백삼십삼미리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십팔일오전부터 돌연 바람석거쏘다지는비는 계일숨몰으고 이백미리이상의 우량을돌파하고잇다 중정(仲町)과 일출정(日出町)은선창시가지의관계상 아즉하수의 시설이업슴으로 부근일대는전혀침수 상태에빠지게 되야 대부분에 밥을짓지못하는 중에 잇스며 우긔는 온비보다도장차 올비가 만할것가터 뵈임으로일반이심은 초조하야 잇다

錦山의豪雨로 各線交通杜絕
降雨量百十三粍

【錦山】 전북금산지방에는그간적하고갈하고 모를 올기지못하야 일반은 큰근심으로지내든바 지난이십오일 오후부터 큰비가내리기시작하야 이십칠일 오전까지에 내린비가백십삼미리로 아직도 개이지안코 계속되는데 이앙은 천봉답싸지

沃溝、野水國化
農作被害多大
家屋浸水百餘戶

【群山】 오래동안한발(旱魃)로 걱정하여오든농민들은 또다시 수해를걱정하게되엿다 걱정업시질펀히업시 지내는것이 농민의 생활이지 푸른호로뎃하든옥구평야(沃溝平野)가수국이되여버리고 말엇는데 농작물의피해가만흔것은 물론이려니와 평야지대에잇는 야촌가옥(野村家屋)은백여호나침수중에잇서 일반인심은공황이 초조하고잇다한다

錦江刻刻增水
交通不便莫甚

【公州】 오래인 가물끗헤 나리는비는장마비로변하야방금공주지방은 참사일을두고 계속하하야퍼부어 금강(錦江)이 각각으로 증수(增水)되야 고릉에크다란 불편을이루우고 잇는중인데 알흐로더계속되면 농작물에도 피해가 잇스리라한다

도 물론이오 하천증수(河川增水)로인하야 각선교통이두절되얏스며 우편물까지도 대연착을하야 곤난이형언할수업다 한다

學生溺死

【公州】 오래동안 감물든끗헤 나린비로 인하야 증수(增水)된 공주금강(錦江)에 소학생한명이 싸저죽엇다 지난이십칠일오전 여덟시경 공주금성보통학교(錦城普校) 륙학년학생 정윤구(鄭允九)(一五)라는 소년은 공주군장기면월성리(長岐面月城里) 자긔집으로부터 학교로오는도중 건기금강 주교(舟橋)위에서 그릇하야 책보를빠트린것을 건지려하다가 그대로 싸저바렷는데 공주서와학교측에서 출동하야 시체를차즈려고 노력중이나 아직발견치 못하고잇다한다

盛況豫期하는 崇專巡廻公演
—出演種目—
處女公演期日切迫

【平壤】 평양숭실전문학생긔독교청년회농촌부(崇專學生基督青年農村部)에서본사학예부(本社學藝部)와본사각지국(本社各支局)의후원을바더칠월일일부터전원극(田園劇)과음악연주회(音樂演奏會)를순회공연(巡廻公演)한다함은긔보와갓거니와이외에도보건체조(保健體操) 농사강연(農事講演) 농사강좌(農事講座)등 조선농촌에 가장긴급한 주최도동시에 거행키로되여인긔는 발서부터 비상이 불등하여잇다 지방순회 등정을평양에서 크게소래치고저 칠월일일 하오팔시삼십분부터 신양리(新陽里) 동교대강당(同校大講堂)에서전원극과 음악을처녀공연키로되여박금동교 전원극부원과 음악부원총동원하여최후의 맹연습을하고잇다

칠월일일공연할예제의『스토리』는대략 다음과 갓타서 엄마나현하조선 농촌의사회상(社會相)을 이처참한가를 숨김업시 나타내일것이라한다

演出種目

—音樂—

管樂四重奏 提琴獨奏 四重唱 바리톤獨唱 첼스폰獨奏及二重奏 二重唱 保音獨唱等十種目

—演劇—

金梅山作 金東振選曲 우리行進曲(六部作)

우리들의 行進曲은 果然엇던가? 綜合的으로 六部作인만큼 其內容이 複雜하고 行動의多樣變化하는것等은 實로深長한意味와 興味百퍼ー센트

◇金梅山作 機械人間(全一幕)

참된意識은얼마나 큰힘을가지고잇는가? 보라! 中等以上의救濟事業은? 女子로서 一時는 實地에서지되엿고 至今은 博覽會『마네킹걸』로 출하고잇는尹貞姬과 今春某大學을卒業하고 官界에서就職을가젓든 金永一의兩人이 엇재서 農村으로가게되엿든가? 人生의오직참된意識의動向은 여기에서볼수잇슬뿐이라고한다

◇李瑞求作 동백꽃(全一幕)

시골處女와總角사이에일어나는 흙냄새가나는사랑의속삭임그리구시골處女의至極한純情! 人間의참사랑과農村의悲劇을엿서그려내인 눈물의이야기

◇金梅山作 十年後(全一幕)

「十年이면江山이變한다」는것을 標語로하는 農村運動家金鎭은 十年이란 긴歲月동안에 무참한고생을겪엇다 自己의안해싸지도희생식혓다 그러나 十年後에 그農村은 지나簡으로가득찻다 뿐은피로풀니며 싸호는처참한場面은 가고自由의鍾을 中心으로 舞하는 場面이 나타난다는 눈물과 그리구 깃붐의이야기

群山地方에는
雨量二百미리

公州地方麥作
四割乃至五割減
◇…農家物情騷然

【公州】 가믐신곡 써싸지공민의유일한 식량인보리(麥)가 금춘의심한 한발로인하야 이즘수확기에이르러 예상외의 만흔감수를보게되여 공주지방의 감수는 사할내지 오할가량이라는바 이로인하야 일반농민의 궁황은 한경더한세음으로 우려를 마지안는중이라한다

爭議中小作畓에
심은모를拔棄
被害作人告訴를提起

【咸安】 함안군법수면백산리(咸安郡法守面白山里) 황수한(黃洙瀚)은 동면 황사리(篁沙里)황수룡(黃洙龍)의 토지여들두락을 년래소작하여 오든바 작년에 한발로한두락은 모를심으지못하야 전연수확이 업섯스나 무수확지싸지 소작료를 청구함으로 칠두락소작료주고 이를거절하엿는데 전긔지주는 이를원인으로 부득이 소작권을 이전하려함으로 소작조정신립(小作調停申立)을하여 방금미해결중에잇고 해토지의 일부인약일두락가량을 소작인은 이미모를심엇는바 지난십사일밤에 전긔황수룡의아들 황주한(黃柱漢)은 심어노흔모를 전부쌔여 버렷슴으로 피해소작인은 극도로분개한남어지에 황수룡을 걸어서지난이십일에 함안경찰서에 고소를제긔하엿다한다

觀衆의 눈물!
畵中의慘劇!
六十名孤兒를爲하는
仁川活寫의第一夜

【仁川】 긔보=인천천주교회 주최와 본사인천지국 후원으로 당지천주교회부속고아원(孤兒院)에서 부모업시 외국사람의 손에서 자라나는 륙십명의고아를위하야 지난이십팔일부터 삼일간을두고 외리(外里) 애관에서 활동사진대회를열고 낫에는 각보통학교아동에게관람케하고 밤에는 일반부민에게 공연하기로되어 이십팔일 오후두시부터는박문(博文)보통학교남녀학생과동명(東明)학원아동천여명이 입추할여지가 업시 만장되엿는데 막막이열리는이십륙성인(二十六聖人)의 순교혈사(殉敎血史)의 비극은 어린아동들의 본능적(本能的)자비심을일으키어 일시곡성이 진동되엿스며 밤여들시부터는 리영태(李榮泰)씨의개회와 장광순(張光淳)씨의 사회로 동대회가 시작되엿다 비 마츰비가옴에도 불구하고 고아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한 미만원의 성황을일우엇는데 당일밤 상연한연제도 또한순교혈사 구석구석이 싸내는눈물과 고아들을위하는 열정이 서로엉키어 자못비애에넘치는 인정극속에서 제일야를마치엇는데 당일밤 관중석으로부터 동정된금액과씨명은아래와갓다

▲一金二十圓愛舘▲一金十圓朝鮮日報仁川支局▲一金五圓張光淳▲一金五圓李根▲合計四十五圓

南川幼園復活
諸氏의同情바더

【南川】 남천유치원(南川幼稚園)은당지야소교회에서 선교부로부터 보조금매달 삼십원식 밧어가지고 우금 십년동안이나 경영하야오든바 금년부터는 동선교부에서 십원식박게 더보내주지안음으로 이유치원은 부득이문을닷게되엿다 원상 김대유(金大柔)녀사는이것을유감으로 생각하고 청심으로 활동하든중 이사실을 드른 남천주물조합에서 소하엿든바 이를드른 국물조합간부제씨는 매달이십원식 동유치원에 보조하기로되야 이제부터이유치원은완전히부활하엿다

飮酒로돈쓰고 虛僞强盜告發
拘留十日당해

【新義州】 지난이십칠일오후구시경에 신의주부미륵동(新義州府彌勒洞)에사는 박희부(朴熙富)(三○)는 동동 박치관(朴致寬)방에서 계금(稧金)을원놋엇어가지고 도라오다가 길에서술을동무를맛나 음식점에서 술상원

이케를먹고 절에모르다가 가난한살림에 돈삼원이어나 술을 먹엇다면 가족에게 면목이업것스므로 나머지삼원은 강후고강도이명에게 강탈당하엿다고 미봉파출소에허위 고발하엿엇스므로 이곰보를 접한신의주서(新義州署)에서는 여러방면으로 수배하는 동시에 고발자를엄밀히조사하엿더니 허위고발인것이 판명되엿다는데 이런사건이 다른곳에서도 빈발하는 관계상 엄중취조키로하여 구류(拘留)십일에처하엿다한다

自轉車專門
竊取中人逮捕
五十餘臺를竊取

【安東縣】 수일전안동경찰서에서는 오십여대의 자전차를절취상습자를 체포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자는 원적을봉천성장하현대구산에둔 만인우빈한(于彬漢)으로 수년전부터안동우편국,취인소(取引所)카페ー,음식점,공설시장가타 시내각상점압헤노힌자전차를 절취하야 그를대고산(大孤山)봉황성(鳳凰城)등지로운반하야한대에 오원내지 이십원을 밧고 방매한것이라는바그액은 약일천원에 달한다고한다

全朝鮮……◇
씨름、건네大會
今三十日에決勝戰

【平壤】 평양서평양음식점조합주최와 본사평양지국 후원으로개최된 전조선씨름 근네대회는 예정대로이십칠일부터 개최되엿는데 량일간의일회전 입상자는 씨름부에팔십칠명 근네부에 오십삼명의다수에 달하엿다 이십구일에도 예선을행하고 삼십일 최종일에는결승전에 올니가게되여 흥미는고조되고잇다한다

江陵農校三年生
同盟休學斷行!
◇……三個條의要求를提起
時間外實習이動機

【江陵】 강릉농업학교에서는 지난륙월 십구일에 삼학년생일동이그날 실습을예시간하고 집에도라갈 시간이 되엿는데담임선생은수건(收獲)을또하라고함으로생도들은 배가곱흐니 저녁을먹고와서 하면어떠냐고 한즉 선생은 안된다함으로 학생들은 선생의 무리함을 말하고일부면 학생은집으로 가려고한즉 선생은너이들이 그러케할진대 나도 상당히 생각하야 처분하겟다 하면서 사무실로드러갓다 이선생의행동에 격분한 생도들은그 이튼날인 이십일에 교장에게좌긔와가튼 조건을요구하고 이것이해결되기싸지 수업을 밧지안키로하고 일제히동맹휴학을 단행하얏다한다

一、실습시간을단축할것

二、선생의 모욕적 행동을업새일것

三、X선생을 사직시길것

학생으로부터 전긔의 요구서를 바든교장은 이십이일싸지 회답을해주기로하고 그날은 지낫다 이런사건이 발생되자 학교당국은 경찰당국과 협력?하야본사건의악화를 극력방지하며 일방학생의결속을 문허드리랴고 로력중이데 일방학생측에서는 자연히 동지들의 귀향을보게되여 마침내학교당국의 회답기일인 이십이일에는 전교생도가일치 한행동을 취하기에 이르럿다

學校處置에憤慨
一二年도動搖
◇—解決方途査然

이십이일에는 일학년생도들도 상학년생도들의 행동에합류하야 교실에 드러가서학교당국의 답변을드럿는데 당국의답변은가장문제의초점인모교원사직문제에 드러가서는교원의 임명권은 도지사에게속한것인이상 내맘대로 커할수업서서 도지사에게보고하야 선처하겟다고 설명하엿는바 생도들은 그보고서의 원문을보여주면 안심하겟다 한즉교장은경리대로 보이지 못하겟다고 답변하자 생도들은층에서 선생이 거짓말을 한다하야 그날도역시 문제의해결을못지은채흣허젓다

背後人物探査
警察署員出動

문제가 여기싸지에 이르자경찰당국은 사태를 엄밀히감시하기시작하며 배후에 무슨 인물의유무를 탐사하기에 이르럿다 일방 학생들은 동교는하면서 이문제해결이되기까지는 수업을 밧지안코 잇서서 복귀의처지할바를 전연 추측못하기에 이르럿다 본사건이 중대성을 띄어잇슴에감하야 본도학무 파장은 이십삼일 급거히학교에 와서 진상을 조사하며 일방선후책을 강구한듯하나 그내용은 발표치안함으로 알수업다 한다

首謀格十四名에
無期休學處分
◇慰撫運動의失敗로

이십삼일은 학교당국의 생도위무운동도 주효치못한채 지나가고 익이십사일에와서는 돌연 십사명에게 무긔뎡학의 처분을 나렷는데 그씨명은 다음과갓다

▲第二學年生 李原明 辛炳善 崔喆圭 金昌洙 李範錫 康在根 ▲第三學年生 崔鎬燮 金天會 金炯道 李東彦 金璥根 田致培 金鍾河 金星鎬

善後策을希望
關係面長招致

강릉농교의 분규사건은 드듸어 십사명이란 다수의 희생자를내인것은 별항한바와 갓거니와지난이십오일 당지에개최된 강원도초등학교교장회의에참석하고 커출석하엿든 강원도지사 리범익(李範益)씨는 관내 면장들을군칭에소집하야 본문제의 장래의 완화책을희망한바가잇섯다하며 일방학교당국은 학부형을 초청하야흑은성고흑은주의를시켯다고한다

地方評壇

長水

◇ 至今모내기가거의다되여간다 그런데 이모내기에參加한人員中婦女가八割은十割을占領이야말로풋女性들의본바들일이다

◇ 그들이야말로 一個의사람들이다 無意識하나마自立한사람들이다 男便의버려오는돈으로 행시만내며 男便에게 아양만피우는 人形이안이다 男性의享樂의道具가안이다

◇ 우리는그들을尊敬한다 거룩한그들을!참으로사람인그들을 長水에가든女性이만흡쏘자랑한다 누리게안인女性이! 傳統의쇠사슬에서버서난女性이!

◇ 모심으는婦女들을보고 비웃는女性이잇다면 自己가或이나人形이안인가살펴보라 이世上에서업서저야할 쎡질만가진 가산憎惡할人形이안인가를!

潭陽

◇ 潭陽警察署衛生係某는 飮食店移轉屆를提出한 某飮食業主다려『醫藥屆를提出하고新營業所에서 再次許可願을提出하면 無違許可하겟다』하오로前約대로 受付係에許可願을提出하니『일이업다고 나마이엣(ナイヤ)』하바가(バカ)』를連發하신다니 그것이 무슨心事?

◇ 直接으로醫藥을 애조에시켜스면 그만인데이 어인일고? 潭陽社會의一異狀

興南

◇ 속담에 천호가 모와사는곳에는사귀(邪鬼)도업다는데흥남은 만호가살어도 사귀가출몰하는지? 밤이나 낫이나 덩덩궁장단에 궁둥춤추는부녀가 너머만타

◇ 이런곳에 미신타파가 더욱 필요하다 경찰에도 풍긔에도 모다필요! 경찰당국에서 엄중취체하야 무녀(巫女)박멸도필요! 한거름나가 우리민중이 자각하야 미신타파가더욱필요!

新溪

◇ 신계군청에서는근일농촌진흥을위하야 불면불휴(不眠不休)의상태로 만흔로력을하는중 일반농촌의 미화(美化)가 다소보급되리라는데 권원에는 각면으로부터 면서기를집합하야 오군수(吳郡守) 양군속(梁郡屬)인솔하에 이십여명이 측정으로 긔본조사를신계면신적동(新溪面新積洞)에서 밤이깁도록 조사하얏다한다

◇ 근일 신계읍내에는 고란이알굴니기(玉遊技)가 대류행하야 로동수입(勞動收入)사십전밧는 사람들이 이삼원식 일허버리고 회김에 술싸지마신다고

◇ 권원에 엇던자는 자긔어머님이 손발이달토록먹인 도야지판돈 십원을권부 고란이알로다소비하고 싸홈싸지 하얏다한다

◇ 화나는김에 술마시고 돈일코착흥하는 섹한이사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는 피폐현상(疲弊現相)을 깁히 깁히 생각하야 예방주사라도 하야 정신명치료종 하십이여 하

蔚山二大問題
各當局에陳情
甲種農業學校設置 法院支廳復活問題

【蔚山】 경남울산에서는 제일큰문제이며 또다년간 현안이든 울산갑종농업학교(蔚山甲種農校)문제와울산법원지청(蔚山法院支廳)부활문제에 대하여 다시 전군민의 여론이 비등하야 지난이십팔일에는 조선총독을 위시하야 각당국에 진정서를제출하고 직접으로 진정하기위하야경음케씨가 부산(釜山)과경성(京城)으로 출발하엿다고한다

◇陳情委員—金尙熙 李圭正 金佐性 桂登利藏 中谷德一

全北檢擧事件
兩氏無事釋放
檢擧半年만에

【群山】 작년이래 전라북도 경찰부에서 검거하여온 전북검거사건은 수일전에 일단락을지케되여 군산박용보(朴用甫) 리봉근(李鳳根)양씨는 방면되야 도라왓는데 일부분은 서류와함께 송국되엿다한다

定州大雲面에
兇器强盜出現
重傷시키고逃走

【定州】 지난이십오일오전삼시경정주군 대전면 강서동(定州郡大田面江西洞) 칠사팔번지 현재대령강(大寧江)하천공사청부업자 남구차랑(南駒次郞)의 집에장돌쇠를 빗들고 흉긔를가진강도가 침입하야 취침중인남구부처를 쌔운후 널어날쌔에 고초가루를 뿌렷스나 모두장을 치엿으로 목적을달치 못하고 달러드는남구에게 가진 흉긔로이마에약 이주일치료를요하는중상을 입피고 어데로달어나고 말엇다 이급보를 들은 정주서에서는 형사대가 현상에 급행하야 범인수사에 로력한바 지난이십칠일에 진범임명을 체포하엿다는데 아직자세한것은 알수업다한다

保健體操講習
少年陸上競技
南浦體育會事業

【鎭南浦】 진남포체육회(鎭南浦體育會)에서는 지난이십륙일오후 여섯시부터리사간사(理事幹事)회석를 부회장김양식(金養植)씨사회로 개최하고 금년도추천 각회대회결산보고가 잇슨후 금년 사업으로 보건체조강습회(保健體操講習會)와소년육상경기대회(少年陸上競技大會)를개최키로 만장일치가결한후 회관건축문제를 토의하여 건축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일임하고 회원간친회도 개최키로한후 동시반에폐회하엿다

貧窮한同伴의
親葬費를醵出
溫泉青年美擧

【溫川】 신천온천시에서조석 어나거로 그날그날 로동하여 늙온부모를 모시고생활해 나오든 오병도(吳秉道)(二五)군은불행히 오일에 설상가상으로 그아버지가 세상을떠나고 마럿스니 본시빈곤한살님에 엇지할바를 모르고 딱한사정을 세상떠난 아버지에게매달녀 통곡하고 인분가련한 정경을 본리화춘(李華春) 김만집(金萬集)량씨의발긔로그의동무들에게 발하엿든바 그들의어려운주머니에서 성의엇써모은 귀여운돈 이십사원 오십오전은 총장례비를 쳐하고 도남음이 잇서생활비로 주엇슴으로 이것을 아는사람들은칭송이 놉다한다

平壤

崇專巡廻演劇音樂大會

△時日 七月一日下午八時半

△場所 崇專大講堂

◇主催 崇專學生基督青農村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一의十二)

琴童

그러나 거기서 홍선이 잠은 들엇스나 홍선의 잠은오래계속되지 못하엿다 마음속에숨어잇는 커다란 수심때문에 잠이 든지 엄마 되지못하여 번쩍 눈을쩟다

『으—므』

한소리 기지개와 함께 홍선은 사면을살펴 보앗다 처음한순간은 부드러운 커니와뜻뜻한 넓은방이 낫설엇지만그것이 영초의집 사랑 정청(正廳)이라는것을 요해하면서 홍선은 몸을이르켯다 이러나며 아쉬의 기생이 시중을 들으라고 기다리고 잇다가 홍선에게 냉수대접을 바첫다

『응 한잠 잘잣군 어서 집으로 가야겟군』

홍선은 양치를 한뒤에 자긔의 의관이 어듸 잇는지를 살필때에 집사람이 열리며거기서 주인영초가 나타낫다

『벌서 다 주므셧소?』

『아이구 잘 어터 먹고 낫잠까지 자고……인전 가야겟소』

『왜 좀더 천천히가시자요』

말을 계속하는것을 홍선은 가로 막엇다

『해경이 나—』

『해경이 다 뭐요? 어서가야지 집에서는 눈이 싸지게 기다릴 터인데』

그말을 들엇는지 못들엇는지 영초는 거기는 대답지안코 가싸이 나려왓다 그리고 홍선이 자리를 빗기라는것을 손짓으로 막고 자긔는 발치에 물러안졋다

『가신다 해도 그 옷이 모도 구겨저서 어떠케 그냥가십니싸 저방에—』

영초는 손을 들어서 제청방쪽을 가르쳣다

『잠간 가 보세요 번번치는 못하나마 갈아 입으실 옷을 준비햇슴니다』

홍선은 눈을 들어서 영초의 얼굴을 바라 보앗다 마조 자긔를 드려다 보는 눈—그것은 결코 당대의 권문 대제학 김병학의 눈이아니오 한개 사람—서로 접근할수가 잇는『사람』김병학의 눈이엇다 홍선은 잠시영초의 눈을바라 보다가말엇다 이러케 불쾌한 자위가 잇섯스면 홍선은 (엇덧은 모르지만)호의로 창조의 말을 거절할수가 업섯다

척방에 들어가 보매 아희칫작이가 의복일습을 보료아래녹이고 잇섯다 갓에서 버선 대님 허리띄 주머니에이르기싸지 의복일습이 자긔를 위하여 준비되여 잇섯다

홍선은 거기서 아희칭찬이의손을 빌어서 옷을 갈아입엇다 버서노코 보니 자긔의 낡은 옷은 구기기는커녕 쌔도 쌔 만히 써어 잇섯다그것을 버서 던지고 흐느러지는 비단옷을 입고 나니 가난에 커진이 공자의 몸은마치 하늘로 날아 올라갈도듯하엿다

『우화등선— 그러나 몸이혜뜬것이 옷을 입은것갓지를안쏘』

이것이 이조흔 새옷을 준데 대한 홍선의 인사엿다

영초는 미소하면서 대답하엿다

『변변치 안흔 옷이외다』

『과연 변변치 안쏘이다 대감께서는 만히 잇는옷이니변변치 안흘것이고 내게는 입어도 입은것갓지 안흐니 변변치 안코—나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야 그럴듯한 인사도 못밧는 법이외다 하하하하』

이 자긔게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는 영초에게 대하여얼마의 조력을 청하고 시픈생각은 뒤를 이어서 이러낫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의 우에 더 무엇을 청구할만 용긔싸지는 생겨 나지를 안엇다

영초는 자긔의 쓰는 초헌(軺軒)싸지 등대하여 두엇다가 돌아가는 홍선으로 하여곰 타게 하엿다

비단옷에 검건 곰을 초헌우에 싯고 구송 별배를뒤에 달은 이 공자—세상이세상일것가트면 당연하고 또당연한 일일지나 홍선은 마치 위압된듯이 몸을초헌우에 웅그리고 잇섯다

초헌에 몸을 싯고 구송 별배를 뒤에 달은 이 호화로운공자가 마음속가운데는 당장의 써니의 쌀수걱정싸지 하는사람이라고는 알사람이업섯다 영초의 초헌에 대하여길가는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엿다

이리하여 홍선은 표면으로는 의세조케 자긔의 정운동택으로 돌아왓다